2025 연간보고서

모든 아이와 함께 웃는 세상

올마이키즈








비전 Vison

올마이키즈는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가 웃는 세상을 꿈꿉니다.

올마이키즈 allmykids

미션 Misson

- 저개발국가 아이들의 교육 지속 지원
-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 마을교육사업 지원

핵심가치 Core Value

- 사랑
- 투명성
-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직접과 자립
- 상호성

CONTENTS

01 인사말
02 아동결연사업 현황보고
04 아동결연 배분처 소개
24 배분처 이야기
26 아이들의 이야기
28 2025년 교육지원사업 현황보고
54 꿈 장학회
56 오종순 장학회
60 2026년 교육지원사업
62 꿈이 가득한 집
66 후원자 이야기
70 후원회 행사 및 현지 방문
- 디비아 조티 학교 교실 건립 축복식
- 2025 희망의 순례길
- 캄보디아 제4차 수학여행
76 밸런스 게임
78 연대와 협업
- 인천여성가족재단
- 도서출판 봄볕
- 함께 걷는 사람들
84 2025년 재정 보고
86 주요 연혁
88 후원해 주신 분들

가난한 아이들을 구출하는
희망의 연대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움의 터전이어야 할 학교가 폭격으로 무너지고, 아이들은 책가방 대신 피난 보따리를 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약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전쟁과 가난,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 앞에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얼마 전, 한 후원자님으로부터 가슴 뭉클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나이 들고 아프다 보니 기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술과 수술을 두 번이나 연이어 받으면서 제 머리가 둔해졌나 봅니다. 늦었지만 축일 축하드립니다. 꼭 건강하시고, 부디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구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아픔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시는 그 간절한 부탁이 제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올마이키즈와 함께해주시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아이'가 아닌 '세상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척박한 현장에서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수도자들과 현지 NGO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땀으로 아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마이키즈의 주인공인 아이들, 가난하지만 사랑과 꿈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인 우리 아이들이 부디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마이키즈는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맡기신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구출'과 '희망'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욱(요셉) 신부



아동결연사업

사업 목적

- 후원자와 아동을 1:1로 연결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
- 후원자와 아동의 상호 가족 공동체 연결

지원 대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아동
- 고아, 장애, 여성, 난민 등 우선 지원

지원 내용

월 3만 원 지원

2025년 지원 현황

19개국 39개 배분처: 1,828명 630,298,485원

국가	지역	배분처	담당자	결연아동	지원금액
남수단	마지아 난민캠프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황미라 크리스티나 수녀	39	14,399,997
네팔	카트만두	국제가톨릭형제회(NGO)	이수연 세실리아 선교사	50	21,990,000
	헤타우다	클루니의성요셉수녀회	Teresa Rai 수녀	5	450,495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유경아 노아 수녀	41	3,690,000
모잠비크	마루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김복수 호산나 수녀	21	7,650,000
몽골	바양호셔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이영순 율리아 수녀	12	4,979,977
	울란바토르	예수수도회	전영은 베로니카 수녀	48	16,830,006
	울란바토르	원죄없으신성모성심수녀회(ICM)	Magdalena 수녀	24	8,640,010
	헝허르	인보성체수도회	이경진 푸스카 수녀	24	9,500,000
미얀마	양곤	성빈센트드볼자비의수녀회	안혜숙 파비올라 수녀	8	4,530,000
방글라데시	디나즈뿔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민경자 마리요셉 수녀	84	31,420,000
베트남	닥도아	인보성체수도회	최옥분 말지나 수녀	104	32,819,999
	빈증	성가소비녀회	김선영 오상비오 수녀	48	20,820,020
볼리비아	산훌리안	성가소비녀회	정은희 호영베드로 수녀	14	4,410,000
에콰도르	산타엘레나	성심강림사도수녀회	김미옥 마리스콜라스티카 수녀	75	26,430,000
인도네시아	라란투카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김로사 로사 수녀	79	26,870,000
	쿠팡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Maria 수녀	55	19,020,00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쌈벨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최삼숙 글라라 수녀	70	21,570,000
차드	은자메나	성심수녀회	Dorota 수녀	47	13,319,995



2025년 12월 말 기준

국가	지역	배분처	담당자	결연아동	지원금액
카메룬	바프삼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김지연 아가타 수녀	98	34,470,014
	바피아	바피아교구	Emmanuel Dassi Youfang 주교	75	15,748,000
	야운데	살레시오수녀회	정진숙 세실리아 수녀	9	1,440,000
캄보디아	깜봉톰	깜봄톰교구	Franco 신부	17	7,979,980
	뿌삿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김분선 마리도미니카 수녀 외 1명	93	35,309,986
	시소폰	예수회	오인돈 프란치스코 신부	33	11,879,996
	쩜나옴	성가소비녀회	이정자 그레이스 수녀	26	8,160,000
	크나로미어	성가소비녀회	박희옥 세라피나 수녀	18	8,100,000
	품처레	살레시오수녀회	홍미나 따시아나 수녀	67	26,370,000
콩고민주공화국	노마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Madeleine Mafuta 수녀	70	26,220,000
	킨샤사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Germaine 수녀	64	24,460,000
탄자니아	마핑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Yohani Kalisti 신부	19	10,260,006
	샤오힐	꼰솔라따선교수도회	Vedastus Kwajaba 신부	40	10,739,993
	은단다 / 페라미호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양선희 리오바 수녀 외 2명	31	10,290,000
페루	산페드로	성심수녀회	김숙희 그라시아 수녀	3	540,005
필리핀	다바오	거룩한말씀의수녀회	Naomi 수녀	61	22,140,000
	마닐라	성가소비녀회	이봉숙 필로메나 수녀	14	4,980,000
	바콜로드 / 카비테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이경희 젬마 수녀	89	29,939,996
	세부 / 보홀	말씀의선교수도회(SVD)	Eugene Docoy 신부	94	33,120,006
	퀘존시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이미숙 나타나엘 수녀	59	18,810,000
합계				1828	630,298,485



남수단 마지아 난민캠프

South Sudan

- **수도회 :**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 **담당자 :** 황미라 크리스티나 수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39명







네팔 카트만두

Nepal

- **수도회 :** 국제가톨릭형제회(NGO)
- **담당자 :** 이수연 세실리아 선교사
- **결연시작 :** 2017년
- **결연아동 :** 50명





네팔 헤타우다

Nepal

- **수도회 :** 클루니의성요셉수녀회
- **담당자 :** Teresa Rai 수녀
- **결연시작 :** 2025년
- **결연아동 :** 5명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 **수도회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담당자 :** 유경아 노아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41명







모잠비크 마루파

Mozambique

- **수도회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 **담당자 :** 김복수 호산나 수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21명







몽골 바양호셔

Mongolia

- **수도회 :**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 **담당자 :** 이영순 율리아 수녀
- **결연시작 :** 2015년
- **결연아동 :** 12명





몽골 울란바토르

Mongolia

- **수도회 :** 예수수도회
- **결연시작 :** 2015년
- **담당자 :** 전영은 베로니카 수녀
- **결연아동 :** 48명





몽골 울란바토르

Mongolia

- **수도회 :** 원죄없으신성모성심수녀회(ICM)
- **결연시작 :** 2016년
- **담당자 :** Magdalena 수녀
- **결연아동 :** 24명





몽골 헝허르
Mongolia

- **수도회 :** 인보성체수도회
- **결연시작 :** 2016년
- **담당자 :** 이경진 푸스카 수녀
- **결연아동 :** 24명







미얀마 양곤
Myanmar

- **수도회 :** 성빈센트드볼자비의수녀회
- **결연시작 :** 2018년
- **담당자 :** 안혜숙 파비올라 수녀
- **결연아동 :** 8명



방글라데시 디나즈뿔
Bangladesh

- **수도회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 **결연시작 :** 2016년
- **담당자 :** 민경자 마리요셉 수녀
- **결연아동 :** 84명



베트남 닥도아
Vietnam

- **수도회 :** 인보성체수도회
- **결연시작 :** 2018년
- **담당자 :** 최옥분 말지나 수녀
- **결연아동 :** 104명





베트남 빈증

Vietnam

- **수도회 :** 성가소비녀회
- **담당자 :** 김선영 오상비오 수녀
- **결연시작 :** 2015년
- **결연아동 :** 48명





볼리비아 산 훌리안

Bolivia

- **수도회 :** 성가소비녀회
- **담당자 :** 정은희 호영베드로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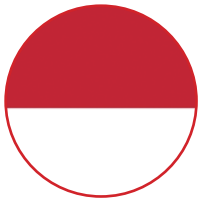
에콰도르 산타엘레나

Ecuador

- **수도회 :** 성령강림사도수녀회
- **결연시작 :** 2023년
- **담당자 :** 김미옥 마리스콜라스티카 수녀
- **결연아동 :** 75명







인도네시아 라란투카

Indonesia

- **수도회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 **결연시작 :** 2016년
- **담당자 :** 김로사 로사 수녀
- **결연아동 :** 79명







인도네시아 쿠팡

Indonesia

- **수도회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 **담당자 :** Maria 수녀
- **결연시작 :** 2016년
- **결연아동 :** 55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쌈벨레

Central African Republic

- **수도회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 **담당자 :** 최삼숙 글라라 수녀
- **결연시작 :** 2024년
- **결연아동 :** 70명







차드 은자메나
Chad

- **수도회 :** 성심수녀회
- **담당자 :** Dorota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47명





카메룬 바프삼
Cameroon

- **수도회 :**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 **담당자 :** 김지연 아가타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98명







카메룬 바피아

Cameroon

- **수도회 :** 바피아교구
- **담당자 :** Emmanuel Dassi Youfang 주교
- **결연시작 :** 2023년
- **결연아동 :** 75명





카메룬 야운데

Cameroon

- **수도회 :** 살레시오수녀회
- **담당자 :** 정진숙 세실리아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9명





캄보디아 깜봉톰

Cambodia

- **수도회 :** 깜봉톰교구
- **담당자 :** Franco 신부
- **결연시작 :** 2020년
- **결연아동 :** 17명





캄보디아 뿌삿

Cambodia

- **수도회 :**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 **담당자 :** 김분선 마리도미니카 수녀, 곽전해 프랑소와즈 수녀
- **결연시작 :** 2016년
- **결연아동 :** 93명





캄보디아 시소폰

Cambodia

- **수도회 :** 예수회
- **결연시작 :** 2015년
- **담당자 :** 오인돈 프란치스코 신부
- **결연아동 :** 33명







캄보디아 쩜나옴

Cambodia

- **수도회 :** 성가소비녀회
- **결연시작 :** 2015년
- **담당자 :** 이정자 그레이스 수녀
- **결연아동 :** 26명







캄보디아 크나로미어

Cambodia

- **수도회 :** 성가소비녀회
- **담당자 :** 박희옥 세라피나 수녀
- **결연시작 :** 2015년
- **결연아동 :** 18명





캄보디아 품처레

Cambodia

- **수도회 :** 살레시오수녀회
- **담당자 :** 홍미나 따시아나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67명







콩고민주공화국 노마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수도회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 **담당자 :** Madeleine Mafuta 수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70명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수도회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 **담당자 :** Germaine 수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64명







탄자니아 마핑가

Tanzania

- **수도회 :** 꼰솔라따선교수도회
- **담당자 :** Yohani Kalisti 신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19명





탄자니아 샤오힐

Tanzania

- **수도회 :** 꼰솔라따선교수도회
- **담당자 :** Vedastus Kwajaba 신부
- **결연시작 :** 2018년
- **결연아동 :** 40명





탄자니아 은단다 / 페라미호

Tanzania

- **수도회 :**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 **담당자 :** 양선희 리오바 수녀, 박진미 아니타 수녀, Evangelista Namangaya 수녀
- **결연시작 :** 2019년
- **결연아동 :** 31명







페루 산페드로

Peru

- **수도회 :** 성심수녀회
- **담당자 :** 김숙희 그라시아 수녀
- **결연시작 :** 2015년
- **결연아동 :** 3명





필리핀 다바오
Philippines

- **수도회 :** 거룩한말씀의수녀회
- **결연시작 :** 2014년
- **담당자 :** Naomi 수녀
- **결연아동 :** 61명





필리핀 마닐라
Philippines

- **수도회 :** 성가소비녀회
- **결연시작 :** 2014년
- **담당자 :** 이봉숙 필로메나 수녀
- **결연아동 :** 14명







필리핀 바콜로드 / 카비테

Philippines

- **수도회 :**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 **담당자 :** 이경희 젬마 수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89명





필리핀 세부 / 보홀

Philippines

- **수도회 :** 말씀의선교수도회(SVD)
- **담당자 :** Eugene Docoy 신부
- **결연시작 :** 2014년
- **결연아동 :** 94명







필리핀 퀘존시티

Philippines

- **수도회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결연시작 :** 2014년
- **담당자 :** 이미숙 나타나엘 수녀
- **결연아동 :** 59명





아이들의 길 위에서 마주한 희망과 고민



수녀님과 아이들

평화를 빕니다! 필리핀 다바오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 나오미 수녀입니다.

올마이키즈 덕분에 가난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6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좋은 미래를 만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마이키즈 담당을 맡으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먼 곳으로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거나, 학교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공부 대신 트라이시클(오토바이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운전하며 조금이라도 가족의 수입을 돕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라도 부모님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다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급식과 장학 대상 아이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기쁘게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다바오 거룩한말씀의회, 나오미 수녀

라란투카의 개구쟁이들



체조하는 아이들



수녀님과 수업받는 아이들

산타 까르멘 살례스 학교가 위치한 라란투카는 플로레스 섬 동쪽 해안에 자리한 곳으로, 학원도 도서실도 서점조차 없어 학교가 아이들에게 유일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교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신이 나서 달려가고,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싹 잊어버리고 나타난 녀석들은 선생님들의 잔소리에도 면역이 생겨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밥도 순식간에 먹고 뛰쳐나가 땀범벅이 되도록 뛰어놉니다. 꽃나무에 긁히고 부딪혀 다쳐도 만병통치약 기름 한 번 바르면 다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2학년 욘투스가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양호실에 왔습니다. 라란투카는 병원 시설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반창고만 붙여달라 하시며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한시름 놓은 욘투스는 곧바로 또 뛰어나가다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교 후 땀과 흙으로 꾀죄죄해진 아이들을 내일 또 새옷 입혀 보내야 할 어머니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개구쟁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 교실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넥타이와 꽃나무에 걸려 있는 꼬질꼬질한 양말 한 켤레를 바라보면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그 성장에 함께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라란투카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김로사 수녀

인도네시아 라란투카

A09AQ066F



Daniela Santa Fransia Etidena

다니엘라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의 세인트 까르멘 살레스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다니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짧은 애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니엘라를 '산타'라고 부릅니다. 산타는 예의 바른 학생이지만 매우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이해하는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산타는 진지한 얼굴로 열심히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대답하고 싶어 손을 들고 궁둥이까지 들썩이며 "저요, 저요!"를 외치는 동안에도 산타는 조용히 생각을 이어 갑니다. 선생님이 산타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면 큰 눈을 껌뻑이며 조심스럽게 웅얼거리는데, 아직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가끔 산타가 대답하면 친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 줍니다. 산타는 인도네시아어 시간을 좋아합니다.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다른 과목들도 성실히 공부합니다. 체육 시간에는 땀 흘리며 신나게 뛰고, 영어와 수학 시간에도 어렵지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성적은 오히려 개구쟁이 친구들보다 좋은 편입니다.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성장하는 산타의 모습을 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아프리카 보쌈벨레

B15AT039M



Dimanche Penel

디망쉬 페넬

안녕하세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루이 쇼베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페넬입니다. 페넬의 아버지는 페넬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넬 어머니가 페넬을 가진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페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페넬을 낳았습니다. 페넬 어머니는 친정집에서 살다가 페넬이 2살 되던 해에 친정집에 맡겨 놓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떠났습니다. 페넬은 어머니가 떠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손에서 자랐기에 어머니가 떠나도 큰 어려움 없이 외할머니의 보살핌과 외삼촌들의 사랑으로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페넬 집에 방문했을 때 페넬은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 수녀를 보고 무서워 도망가면서 울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유치원 등록을 하러 왔을 때도 사무실에서 경계의 눈빛으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가 이름을 부르니 울었습니다. 페넬은 한참 동안 선교사 수녀에게 거리를 두고 피해 다녔습니다. 유치원에 오면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페넬은 이제 유치원에 적응되어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사진 찍어 준다고 하면 좋아서 승리의 손가락을 올리며 폼을 잡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미끄럼도 타며 신나게 노는 것을 봅니다. 페넬은 자주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장난을 치며 사이좋게 놉니다. 유치원을 다니면서 성장해 가는 페넬에게 올마이키즈를 통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교육지원사업

사업 목적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선교지 및 협력 기관 중 교육 지원이 시급한 단체
- 결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지역 교육 환경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연 1회 정기 교육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 선정된 단체는 3년 동안 지속 지원

2025년 지원 현황

15개국 24개 배분처: 455,600,000원

나라	배분처명	사업명	2025년 지원금액
네팔	클루니의성요셉수녀회	포카라 조티 켄트라 탁아소 교사 인건비 지원	10,000,000원
모잠비크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마루파 공부방 교사 인건비 지원	9,000,000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마루파 시골 학교 학용품 및 간식 지원	12,000,000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우텐델레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교사 인건비 지원	10,000,000원
몽골	인보성체수도회	헝허르 인보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7,000,000원
	원죄없으신성소성심수녀회	울란바토르 레인보우 센터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12,000,000원
방글라데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밧빠라 나자렛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및 교사 양성 지원	5,000,000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디나즈뽈 여성 재봉 교육 및 보건 위생 지원	7,600,000원
베트남	인보성체수도회	닥도아 탄화성당 이주민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	10,000,000원
에콰도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산타 엘레나 공부방 봉사자 인건비 지원	10,000,000원
인도	애덕의도미니코수녀회	아삼, 마디아프라데시, 자르칸드 부족 지역 소외 아동 학업 및 기숙사 지원	20,000,000원
차드	살레시오수녀회	쿰라 아욱실리아 직업훈련센터 건축 지원	70,000,000원
카메룬	바피아교구	냐비디 가톨릭 학교 교실 증축 지원	49,000,000원

"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가정과 마을과 세상을 바꿉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나라	배분처명	사업명	2025년 지원금액
캄보디아	바탐방교구(따헨본당)	따헨 유치원 건축 지원	30,000,000원
	사단법인 행복공장	푸삿 아동·청소년 생태 환경 교육 및 환경 개선 지원	30,000,000원
탄자니아	꼰솔라따선교수도회	만다·미라카 보육원 아동 급식 지원	12,000,000원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산자 성당 아동 학용품·교복 및 급식 지원	20,000,000원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음고응고 기술학교 청소년 지원	12,000,000원
	꼰솔라따선교수도회	마핑가 신학교 자립 농업사업 지원	16,000,000원
파키스탄	카밀리아수도회	파이살라바드 취약 아동 학비 및 생활 지원	20,000,000원
페루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리마 만차이 지역 아동 급식 지원	12,000,000원
필리핀	카푸친아미고형제회	카비테 우정의 집 아동·청소년 교육 및 급식 지원	30,000,000원
콩고민주공화국	살레시오수녀회	마카나 학교 교실 바닥 공사 및 환경 개선 지원	30,000,000원
	꼰솔라따선교수도회	도루마 세인트 어거스틴 학교 교육자재 지원	12,000,000원
합계			455,600,000원

네팔
포카라

조티 켄트라 탁아소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클루니의성요셉수녀회

사업비
연 10,000,000원

"오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던 하루"

네팔 포카라 지역의 많은 부모들은 호텔이나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997년에 문을 연 조티 켄트라 탁아소는 이런 가정의 18개월~6세 아이들을 맡아왔지만, 후원이 끊기면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교사 14명과 돌봄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탁아소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몬테소리 방식의 놀이와 학습을 경험하고, 위생과 건강 관리도 함께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덕분에 45명의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일터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따뜻한 보살핌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 단체 사진



수업받는 아이들



조티 켄트라 탁아소 교사

모잠비크
마루파

공부방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 2026년

협력 기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사업비
연 9,000,000원

"배움이 배고픔을 이겨내던 시간들"

모잠비크 북부 마루파 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밭일을 나간 사이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며 방치되기 쉽고, 학교 수업도 반나절에 그쳐 방과 후 돌봄과 보충 학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마이키즈는 공부방 교사 7명의 급여를 지원해 배움의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약 270명의 취약계층 초·중학생이 무료로 공부방을 이용하며 숙제 지도, 독서, 음악,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식과 점심도 함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읽고 쓰기를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기초 학습을 익히고 수업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대신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간식 먹는 아이들



모잠비크 마루파 공부방 교사



수업받는 아이들



수업 준비하는 교사

모잠비크
마루파

시골 학교 학용품 및 간식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사업비
연 12,000,000원

"연필 한 자루로
꿈을 써 내려가던 아이들"

모잠비크 시골 지역은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 아이들은 지붕 없는 교실이나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며 먼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닙니다. 기본적인 학용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한국외방선교수녀회와 함께 매월 16개 학교를 방문해 노트, 연필, 볼펜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과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루파 지역 학교들을 추가로 찾아가며 아이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작은 연필 한 자루가 아이들에게 꿈을 적는 도구가 되었고, 난생처음 받아 든 간식은 배움의 기쁨과 함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자란 배움과 나눔의 씨앗이, 아이들의 더 넓은 내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간식 먹는 아이들



수업받는 아이들



야외 활동하는 아이들

모잠비크
우텐델레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사업비
연 10,000,000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웃는 세상"

모잠비크 우텐델레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교사들조차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해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미래를 꿈꾸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한국외방선교수녀회와 함께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소속 교사들의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교사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수업을 더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함께 교리반도 운영하며 아이들의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갔습니다.
교사들의 안정이 교실 분위기를 바꾸었고,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우텐델레의 교실이 희망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모잠비크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교사


수녀님과 수업받는 아이들


선생님과 아이들

몽골 헝허르

인보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인보성체수도회

사업비
연 7,000,000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곁에"

몽골 헝허르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으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알코올·게임 중독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고, 아이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과 따뜻한 어른의 동행이 절실합니다.

올마이키즈는 인보성체수도회와 함께 인보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 학습을 제공했습니다. 인건비와 간식비, 소풍·캠프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영양 간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 17명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소풍과 캠프, 졸업여행을 통해 몽골의 자연을 만끽하고 협동심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인보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야외 활동하는 아이들



수녀님과 야외 활동하는 아이들



수업받는 아이들



식사하는 아이들

몽골
울란바토르

레인보우 센터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원죄없으신성모성심수녀회

사업비
연 12,000,000원

"장애를 넘어 가능성을 보여주던 순간"

몽골 전체 인구의 약 3.3%가 장애인이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정 내 차별과 교육 기회의 제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울란바토르 지역의 많은 장애 가정은 빈곤 상황에 처해 있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올마이키즈는 원죄없으신성모성심수녀회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센터와 협력해 통합 교육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가죽 공예, 양초 만들기, 비즈·펠트 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완성하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간의 지원으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눈 축제, 설 행사 등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소속감과 자존감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만의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운동하는 아이들



활동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방글라데시
밧빠라

나자렛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및 교사 양성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사업비
연 5,000,000원

"배움이 서로를 살리던 시간"

방글라데시 디나즈뽈 밧빠라 지역은 소수 종족이 다수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부모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자녀 교육을 돌볼 여력이 없고, 문맹률이 높아 가정에서의 학습 지도도 어렵습니다. 하교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기 쉬웠고, 학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나자렛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빈곤 가정 아동들에게 방과 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요 과목 복습과 집중 지도를 통해 학습 부진을 겪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교사 일자리를 제공해 학비를 마련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낙제 위기에 놓였던 아이들 중 상당수가 상급반으로 진학하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청년 교사들도 교육 현장의 경험을 쌓으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청년들의 자립이 서로를 북돋우며, 지역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옹기종기 수업하는 아이들



책 읽고 있는 아이들



교육받는 부모들

방글라데시
디나즈뽈

여성 재봉 교육 및 보건 위생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사업비
연 7,600,000원

"한 땀의 바느질로 꿰매는 자립의 내일"

방글라데시 디나즈뽈 지역은 농업 중심의 소도시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여학생들은 빈곤과 조혼 관습으로 인해 교육과 건강 모두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생리대와 같은 기본 위생용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이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한국외방선교수녀회와 협력하여 가난한 여성들에게 재봉 교육을 제공하고,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면 생리대를 직접 제작해 여학생과 여성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건강과 위생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바늘조차 잡아보지 못했던 수강생들이 인형과 소품을 만들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직접 만든 인형을 손에 쥐며 느꼈던 기쁨은 경제적 도움을 넘어 정서적 회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건 파는 아이들



생리대 나눔



재봉 교육

베트남
닥도아

탄화 성당 이주민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인보성체수도회

사업비
연 10,000,000원

"와서 공부하고 꿈을 이루자"

베트남 닥도아 지역의 소수민족과 이주민 가정 아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보성체수도회는 '사랑의 학교'를 통해 이주민 아동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놀이공원 체험, 실내 놀이터 방문 같은 특별 활동비와 함께 간식과 영양식, 도서 및 학습 교구 구매비를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가보지 못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제공된 영양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북돋웠고, 풍성해진 교육 자료는 배움의 환경을 한층 나아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급식 시간



장기 자랑 하는 아이들



미술 공부 시간



간식 받는 아이들

에콰도르
산타 엘레나

공부방 봉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2026년

협력 기관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사업비
연 10,000,000원

"무더위도 막지 못한 배움의 열기"

에콰도르 산타 엘레나 변두리 지역은 미혼모 가정과 맞벌이 노점상 가정이 많아 아동들이 방치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극빈층 가정의 아이들은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강림사도수녀회는 이 지역 아동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며 방과 후 학습 지도와 돌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공부방 운영에 꼭 필요한 봉사자 10명에게 교통비를 포함한 수고비를 지원했습니다. 오전 근무 교사, 대학생, 가정주부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각자 8~10명의 학생을 전담하여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행정과 급식을 맡은 봉사자들에게도 활동비가 함께 지원되었습니다.

학습 부진이 심각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성적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식과 식사, 건강검진 등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도, 공부방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가는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업받는 아이들



토론하고 있는 아이들



등교하는 아이들



간식시간

인도

아삼, 마디아프라데시, 자르칸드

소외 아동 학업 및 기숙사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애덕의도미니코수녀회

사업비
연 20,000,000원

"다시 열린 교실, 다시 시작된 아이들의 꿈"

인도의 아삼, 마디아프라데시, 자르칸드 등 부족 지역은 문맹률이 높고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여아들은 조기 중퇴, 조혼, 아동 노동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극심한 빈곤은 아이들의 배움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애덕의도미니코수녀회와 협력하여 소외된 부족 아동, 특히 여아들이 고등교육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숙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동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상담으로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오르고 학습 능력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중도 탈락 위기에 놓였던 아이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교복 선물 받은 아이들



아이들과 선생님들



선생님들

차드 쿰라

아욱실리아 직업훈련센터 건축 지원

사업 기간
2025

협력 기관
살레시오수녀회

사업비
70,000,000원

"사막 위에 세운 희망 한 채"

차드 쿰라 지역은 국토의 3분의 1이 사막인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빈곤과 일자리 부족으로 14~17세 소녀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미혼모가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는 이런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직업 훈련과 기초교육을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아욱실리아 직업 훈련 센터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외벽 마감까지 전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재봉, 컴퓨터 교육, 기초 문해 교육 등 실질적인 직업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말에는 지역 아이들에게도 열린 활동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사막의 땅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여성들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직업학교 건축 초기



직업학교 건축 중기



직업학교 건축 완공

카메룬
냐비디

가톨릭 학교 교실 증축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바피아교구

사업비
49,000,000원

"강을 건너 찾아온 배움의 자리"

카메룬 냐비디는 교구 중심 도시인 바피아에서 약 50km 떨어진 숲속 마을로, 비포장도로를 지나 강을 배로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외딴곳입니다. 교육 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의 아이들은 안정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냐비디 가톨릭 학교는 2022년 학부모들과 교황청 아동선교회의 도움으로 교실 두 개를 지으며 시작되었고, 현재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졌고, 올마이키즈는 학교 확장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새 건물에는 교실 3개와 교장실·행정실이 마련되어 2025년 새 학기부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가 안전하고 넉넉한 공간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 채용과 지역 고용으로 마을에도 새로운 활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냐비디 학교 건축 초기



냐비디 학교 건축 중기



냐비디 학교 완공 실내



냐비디 학교 완공 실외

캄보디아
따헨

유치원 건축 지원

"생애 첫 배움을 위한 튼튼한 교실"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바탐방교구

사업비
연 30,000,000원

캄보디아 바탐방주 따헨 지역은 유아 교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시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필요로 해왔습니다.

올마이키즈는 바탐방교구와 협력하여 따헨 성당 안에 유치원과 웰컴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두 개 동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교실과 자유 활동실, 식당과 주방이 갖추어져 배움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울타리 설치와 위생적인 내부 마감을 통해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교육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따헨 아이들은 비와 더위에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교실에서 생애 첫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과 마을 주민이 함께 모이는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딴헨 유치원 완공 신부님과 선생님들



따헨 유치원 완공 실내



따헨 유치원 완공 실외

캄보디아

푸삿

아동·청소년 생태 환경 교육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사단법인 행복공장

사업비
30,000,000원

"자연을 배우며 나를 발견하던 순간"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인근 푸삿 지역은 기후 변화와 빈곤의 영향을 함께 받는 곳으로, 생태 교육과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사단법인 행복공장과 협력하여 한국의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직접 교안을 기획하고 수업을 이끄는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푸삿 지역의 학교와 공부방을 찾아 아이들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나누었고, 빈곤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시간이, 청년들에게는 타인을 도우며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수업 하나가 아이들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생태 교육받는 아이들



강당에 모여있는 아이들



단체 사진

탄자니아
도도마

만다·미라카 보육원 아동 급식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사업비
연 12,000,000원

"점심 한 끼가 학교에 오는 이유가 되던 날"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 차미노구에 위치한 만다와 미라카 마을은 가난과 기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의 많은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는 당연한 일이 아니며, 배고픔은 배움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올마이키즈는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가 운영하는 만다가톨릭 본당과 협력하여 보육원 아동 190명에게 3년째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 쌀, 콩, 채소, 생선 등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중심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덕분에 아이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졌고, 보육원의 출석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점심 한 끼가 아이들에게 매일 학교에 나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



급식 시간

탄자니아
산자

산자 성당 아동 학용품·교복 및 급식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사업비
연 20,000,000원

"바닥에서 책상으로, 작은 기적"

탄자니아 산자 본당이 있는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누리기 힘든 곳입니다. 많은 학생이 먼 거리를 걸어 학교에 오지만, 학용품이 부족하고 교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가난한 가정의 초·중등 학생 100명에게 공책, 연필, 수학 세트 등 기본 학습 물품을 제공하고, 책상과 의자를 보수·추가 설치했습니다. 교복과 신발, 가방도 지원하여 아이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콩, 쌀, 옥수수, 채소 등 식재료를 구입해 규칙적인 급식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책상에 앉아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한 끼가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급식 시간



아이들 단체 사진

탄자니아
이링가

음고응고 기술학교 청소년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사업비
연 12,000,000원

"기술이 가난을 넘어서는 다리가 되던 시간"

탄자니아 이링가 지역 음고응고의 가톨릭 직업학교는 빈곤과 사회적 위험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온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아이거나 거리 생활을 경험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 교육 제도 개편으로 센터가 중등교육 학교로 전환되면서 전학이 필요해진 학생들에게도 학비와 식비를 지원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금속 가공, 자동차 정비, 전기 설치, 재봉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딛고 기술을 갖춘 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지원받은 학생들

탄자니아
마핑가

신학교 자립 농업사업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사업비
16,000,000원

"스스로 일군 땅 위에 자라나는 꿈"

탄자니아 마핑가 지역 소신학교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성직자와 사회의 인재를 꿈꾸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한창 성장할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꼰솔라따선교수도회와 협력하여 신학교가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계형 농업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한 식사를 바탕으로 학업과 성소의 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구는 땅 위에서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마핑가 소신학교 아이들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다이콧

취약 아동 학비 및 생활 지원

사업 기간
2024년 ~ 2026년

협력 기관
카밀리아수도회

사업비
연 20,000,000원

"사라진 걱정 속에서
웃음이 다시 피어나던 아이들"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다이콧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은 벽돌 공장 노동자나 청소부로 일하며 차별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생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카밀리아 수도회와 협력하여 105명의 아동에게 학비, 교복, 책, 가방, 학용품, 통학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전담 담당자가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을 꾸준히 살피고, 신앙 세미나와 인성 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책임감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학비 걱정이 사라지자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고,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아이들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교복과 학용품 받는 아이들



단체 사진 찍은 아이들

페루

리마 만차이

아동 급식 지원

"웃으며 학교에 오기 시작한 아이들"

사업 기간
2023년 ~ 2025년

협력 기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사업비
연 12,000,000원

페루 리마 외곽 만차이 지역은 도시 빈민과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마이키즈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함께 아이들에게 주 5회 점심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채소, 과일, 단백질, 유제품이 고루 담긴 식단을 구성하고,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장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덕분에 고정 수입이 없는 가정의 부모들은 점심 걱정을 덜고 생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울던 아이들은 이제 친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등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먹는 아이들



급식 먹을 준비 하는 아이들

필리핀

카비테 제너럴 트리아스

우정의 집 아동·청소년 교육 및 급식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 2027년

협력 기관
카푸친아미고형제회

사업비
30,000,000원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게 되던 마음"

필리핀 카비테 제너럴 트리아스 지역은 빈곤 가정이 밀집해 있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할 기반 없이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아미고형제회가 운영하는 우정의 집과 함께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센터에 모아 가치관 교육, 보충 수업, 스포츠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육비와 급식을 지원하고,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이동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오르고, 소극적이던 아이들은 점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것이 우정의 집에서 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활동 수업하는 아이들



성전에서 아이들 단체 사진

콩고민주공화국

브라자빌 마카나

학교 교실 바닥 공사 및 환경 개선 지원

"흙바닥이 교실이 되던 날"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살레시오수녀회

사업비
30,000,000원

콩고 브라자빌 마카나 지역은 내전과 사회적 불안으로 교육 기반이 무너진 곳입니다.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살레시오 수녀회는 수녀원 복도와 식당을 교실 삼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마이키즈는 3개 교실의 바닥 타일 공사를 지원하여 흙바닥이던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으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공사 완료 후 약 300명의 아이들이 안정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초등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오후에는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며 마을 전체의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 초기



학교 건축 중기



완공된 학교



완공된 학교와 아이들

콩고민주공화국
도루마

세인트 어거스틴 학교 교육자재 지원

사업 기간
2025년

협력 기관
꼰솔라따선교수도회

사업비
12,000,000원

"열정에 교과서가 더해지던 순간"

DR콩고의 오랜 내전과 극심한 빈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 기회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도루마에 위치한 세인트 어거스틴 학교의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교과서와 기본 교육 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꼰솔라따선교수도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부족했던 학습 물품이 채워지면서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실에서 콩고 아이들



놀이하고 있는 콩고 아이들

꿈 장학회

"더 배우고 싶습니다."

설립 취지

(고) 김귀희 후원자와 (고) 김형동 후원자의 유산기부로 2023년 시작

사업 목적

인재 발굴을 통한 미래 지도자 양성

지원 대상

- 결연후원 아동 우선 선발
- 배분처의 추천 학생은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 지원

2025년 지원 현황

3개국 12명의 학생에게: 20,300,000원

2025년 12월 말 기준

나라	배분처명	꿈 장학생명	대학	학과
몽골	예수수도회	B.Uyanga(오양가)	에투겐 국립대학	초등교육학과
		Nandin-Erdene(난딩 에르덴)	문화예술대학	신문방송학과
		Maralmaa(마랄마)	IKH Zasag국제대학	법학과
		Chenggung(청궁)	농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Heongeorjol(헝거르졸)	후레대학	한국어학과
베트남	인보성체수도회	Vũ Thị Hương Giang(후롱 치앙)	FPT 대학교	정보통신학과
		Pham Van Thien(팜 반 티엔)	응 웬 떳 딴 대학	심리학과
		Dương Văn Tốt(즈엉 반똣)	박장 농업임업 대학교	식물학과
		Thường Thanh Trúc(트엉 타인 쭙)	타이 응우엔 대학교	영어중국어 이중학과
필리핀	말씀의선교회	Christian Agosila Barbanida(크리스천)	보홀 PMI 대학교	해양공학과
		Elonah Jane M. Danie(엘로나 제인)	보홀 아일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Jericho Mira(제리코 미라)	네그로스오리엔탈 주립대학교	정보기술학과



올마이키즈의 꿈(CCUM) 장학사업은 기존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하던 교육 후원을 넘어, 대학 과정까지 이어지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각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현지 수도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여러 장학생이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장학증서를 떠올리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던 학생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던 그 고백은 후원자님의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꿈(CCUM) 장학사업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학업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곁을 지키는 일이며, 가난이 꿈을 멈추지 못하도록 희망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올마이키즈는 한 번 선발된 장학생이 대학 과정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다시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종순 장학회

설립 취지

(고) 오종순 후원자의 유산기부로 2024년 시작

사업 목적

결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교육 취약 계층의 아동 지원

지원 대상

- 신체 및 지적 장애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부재로 가정 기반 돌봄이 취약한 아동
- 분쟁 및 재난으로 신원 확인과 권리 접근이 어려운 아동
- 장래 희망이 사제, 수도자인 아동

지원 내용

월 3만 원 지원

2025년 지원 현황

아동결연사업 14개국, 28개 배분처 153명: 13,770,000원
교육지원사업 2개국, 2개 배분처: 100,000,000원

14개국, 28개 배분처와 함께 지켜가는 153명의 아이들

나라	배분처명	인원
남수단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10명
네팔	국제 가톨릭 형제회	6명
몽골	예수수도회	1명
	원죄없으신성모성심수녀회ICM Sisters	2명
	인보성체수도회	6명
미얀마	성빈센트드볼자비의수녀회	1명
방글라데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명
베트남	성가소비녀회	2명
	인보성체수도회	11명
볼리비아	성가소비녀회(산홀리안)	1명
인도네시아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라란투카)	2명
차드	성심수녀회	13명
카메룬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11명
	살레시오수녀회	1명
	바피아교구	18명

나라	배분처명	인원
캄보디아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1명
	깜뽕톰교구	13명
	살레시오수녀회	3명
	성가소비녀회(쩜나옴)	2명
	성가소비녀회(크나로미어)	1명
	예수회	1명
콩고민주공화국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노마)	7명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킨세소)	10명
탄자니아	꼰솔라따수도회(샤오힐)	1명
	꼰솔라따수도회(이링가)	4명
	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11명
필리핀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4명
	예수성심전교수녀회	2명
	말씀의선교수도회(SVD)	6명
	거룩한말씀의수녀회	1명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린다는
약속 지킬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요한21,6)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어둔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어주신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그물에는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숫자는 구원의 보편성과 은총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며 새로운 삶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오종순 후원자님께서는 평생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특히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자립하기를 꿈꾸셨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품으시고, 평생 모은 귀중한 재산을 사단법인 올마이키즈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신'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올마이키즈는 후원자님의 뜻을 이어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 15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고아와 난민, 장애아동과 여성, 학령기를 놓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원금으로는 캄보디아 바탐방 교구 내 유치원과 아프리카 챠드에 직업훈련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올마이키즈는 오종순 후원자님의 고귀한 뜻이 세상 곳곳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종순 장학회 2025년 연차보고서」와 뒷표지 이미지

카메룬 바피아
Cameroon

003



나의 꿈은 "계속 공부하는 것" 입니다.

아말레그 로제

아동코드 : B07BI003F 생년월일 : 2014-05-07(11살) 성별 : 남자

20 올마이키즈 allmykids

카메룬 바피아
Cameroon

006



나의 꿈은 "천국을 가는 것" 입니다.

아란카나 아츠체나

아동코드 : B07BI006F 생년월일 : 2012-01-01(13살) 성별 : 여자

26 올마이키즈 allmykids

베트남 닥도아
Vietnam
빈보성체수도회

036



나의 꿈은 "수녀님" 입니다.

응엔

아동코드 : A05AX081F 생년월일 : 2008-12-18(17살) 성별 : 여자

96 올마이키즈 allmykids

차드 은자메나
Chad

097



나의 꿈은 "신부님" 입니다.

하이발라무 필립 라와네

아동코드 : B09AR138M 생년월일 : 2007-05-26(18살) 성별 : 남자

230 올마이키즈 allmykids

「오종순 장학회 2025년 연차보고서」 결연아동 153명의 아이들 중

차드 Chad 살레시오수녀회

차드 쿰라 마리아 아욱실리아 직업훈련 센터 건축

아욱실리아 직업훈련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무학력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돕고, 여자 아이들은 가정에서 단순 노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미혼모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양재, 컴퓨터, 요리, 제과제빵 등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차드 직업학교 수업하는 모습



차드 직업학교 완공후

캄보디아 Cambodia 바탐방교구

캄보디아 따헨성당 유치원 신축지원사업

메타 카루나 센터는 오랫동안 따헨 및 로카 코뮌 전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유치원은 5명의 교사 팀의 헌신 덕분에 100명의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양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축 공사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이며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따헨 유치원



캄보디아 따헨 유치원 아이들

2026년 교육지원사업

신규사업 및 연장사업

사업 목적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원 대상

해외 선교지 및 협력기관 중 교육 지원이 시급한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급식, 교육 환경 조성, 학습 지원 등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 지원
현지 기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 및 지원
처음 시작되는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는 출발점

2026년 신규·연장

2026년 신규 교육지원사업: 187,000,000원
2026년 연장 교육지원사업: 103,600,000원

2026년 신규 교육지원사업

나라	배분처명	사업명	사업년도	지원금액
에콰도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공부방 급식 지원	2026년	10,000,000원
카메룬	바피아교구	은투이 성 프란치스코 디시즈농업기술학교 교실 증축 지원	2026년	60,000,000원
	바피아교구	응구에투 마을 식수 공급 지원 (우물)	2026년	20,000,000원
캄보디아	바탐방교구	안나의 집 주거 환경개선 및 시설 증축 사업 지원	2026년	20,000,000원
코트디브아르	꼰솔라따수도회	학교 급식 지원	2026년	20,000,000원
페루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푸칼파 지역 방과 후 교실 건축 지원	2026년	57,000,000원
합 계				187,000,000원

"시작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2026년 연장 교육지원사업

나라	배분처명	사업명	사업년도	지원금액
네팔	클루니의성요셉수녀회	포카라지역 조티 켄트라 탁아소 교사 지원	2024년	10,000,000원
모잠비크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교사 급여 지원	2024년	10,000,000원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마루파 공부방 교사 급여 지원	2025년	9,000,000원
몽골	인보성체수도회	인보성체 가난하지만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지원	2024년	7,000,000원
방글라데시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자립을 위한 재봉 교육 및 보건 지원	2024년	7,600,000원
베트남	인보성체수도회	탄화성당 이주민 사랑의 학교 지원 "와서 공부하고 꿈을 이루자"	2024년	10,000,000원
에콰도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산타 엘레나 지역 공부방 봉사자 급여 지원	2024년	10,000,000원
인도	애덕의도미니코수녀회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	2024년	20,000,000원
파키스탄	카밀리아수도회	100명의 가난한 아동 성장 지원	2024년	20,000,000원
합 계				103,600,000원

꿈이 가득한 집

'꿈이 가득한 집'은 2023년 캄보디아 푸샷 지역에서 1호 가정을 시작으로 현재 40호까지 이어졌습니다.
비가 새고 바닥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이제 비를 피하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와 미래가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1호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은 40호의 집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아이들의 삶에 안전과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 현재 41호부터 45호까지 추가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이 가득한 집 옛 모습



꿈이 가득한 집 축복식

꿈이 가득한 집

“아이들이 꿈 꾸기 위해, 살아갈 공간을 만듭니다.”

사업 목적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정에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보호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취약 가정의 아동

지원 내용 주택 건축 및 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
현지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선정하고, 후원금을 통해 주택 건축을 진행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삶 중심의 통합 지원사업

제41호



후원자
박아영
안재현



제42호





후원자

이명옥
이명일
이명춘

제43호





후원자

송충용
백을순
김기철
조연정
김진숙
장순덕

제44호





후원자

성부용

제45호





후원자

오스틴(이지형)

효성동성당 청년 전례부

로이스

우리 단체를 가볍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효성동성당 청년 전례부 '로이스'입니다.
현재 1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름처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 좋은'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치 남매처럼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많은 단체 중 '올마이키즈'였나요?

효성동 성당에 올마이키즈 담당 신부님이 오셔서 올마이키즈가 어떤 단체인지, 결연후원이나 과정에 대해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례'를 담당하는 단체로써 주님이 하시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지속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소외받고 위험에 처하기도 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원을 시작하게 된 당시에는 단원들 모두 대학생들이었기에 개별보다는 단체로써 함께 후원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후원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한 단원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상징하는 해시태그(#) 3개와 '올마이키즈'를 연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 #복음 #사랑 + 올마이키즈 =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청년들의 사랑이 아이들의 삶에도 기쁨이 되길!

후원을 망설이고 있는 또래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나요?

'저희의 기부액이 너무 적은가?' 싶을 때도 있었고, 아이가 졸업하면 후원을 중단하고 회비를 다르게 사용할까 하는 유혹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루카 21장에서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떠올리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넣은 렙톤 두 닢이 다른 모든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많다고 하셨는데요.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가치를 알아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을 시작한 이후 졸업까지 공부를 마친 아이도 있었고 입양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갑작스레 난민이 되어 후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줄 수 있을 때 용기를 내어 후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안녕! 우리는 전례를 준비하며 신앙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이야.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늘 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어.

우리에게 너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열심히 살아가며 공부하고 있는 너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임을 잊지 말고, 힘들 때에는 멀리서나마 너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냈으면 해.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너와 함께하길 바라며, 한국에서 청년 전례부 친구들이 ♡





부평1동성당 청년 성가대

하기오스

우리 단체를 가볍게 소개한다면?

저희는 부평1동성당 청년 성가대 '하기오스(HAGIOS)'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희랍어로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999년 11월 18일에 창단해서 매 주일 19시 청년 미사에서 찬양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 음악 미사나 음악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톡방에 '기부'라는 말이 처음 올라온 날, 솔직한 첫 생각은?

단톡방에 기부라는 말이 처음 올라온 날, 솔직하게 처음 들은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앗싸' 였습니다. 티 안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째 아동 후원을 하고 있는 걸?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편승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 큰 금액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하고 조금 더 정성을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올마이키즈를 통해 기부에 대한 나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되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기부에는 더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리고 기부를 통한 기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_**신은주 헤네디나**

나도 아직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고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후원자가 된다는 건 어떤 마음인가요?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성장해 가야할 부분이 매우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정되고 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작든 크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마음들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제 주변에 보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어주기 좋은 시기여서 더 용기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낸 작은 용기와 작은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기쁜 마음입니다. _**홍소영 율리안나**

후원한 지금, 단체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달라진 생각이나 분위기가 있나요?

저한테 기부는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지 기부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 성가대 회의 중 한 친구가 올마이키즈에서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받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참여 해보는 것은 어떤지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 기부에 동참 했습니다. 나의 작은 마음이 어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기부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 일이 다른 단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_**이종훈 루카**

마지막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듯, 멀리서 당신을 생각하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루하루 마주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돌아보았을 때,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감사한 순간들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_**이재곤 베드로**





디비아 조티 학교 교실 건립 축복식

네팔 헤타우다, 빛이 깃든 교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77km, 마크완푸르 지역의 중심 도시 헤타우다. 이곳에 '성스러운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 디비아 조티 학교(Dibya Jyoti School)가 있습니다.

2010년, 변변한 학교 하나 없던 마을 외곽에서 클루니의 성요셉 수녀회의 손으로 조용히 시작된 이 학교는, 이제 230여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아이들에 비해 교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임시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면서도, 수녀님들과 아이들은 언젠가 더 넓은 배움의 공간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에 올마이키즈와 후원자들의 사랑이 응답했습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총 6개의 교실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교장실, 8 · 9 · 10학년 교실,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컴퓨터











교실까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가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간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공된 교실에서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김영욱 이사장, 최복련 후원자, 폴 시믹 주교가 함께 자리해 새 교실의 문을 열었고, 학생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공간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앉은 아이들은 오늘부터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칠 도서관과 미래를 배울 컴퓨터 교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는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이 곁에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이 교실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완성된 희망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헤타우다의 아이들이 이 빛나는 교실에서 성장해,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
GOD'S BL







2025 희망의 순례길

하늘과 산과 바람, 그리고 우리



네팔 트레킹 현수막

올마이키즈는 매년 후원자들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떠납니다.
2025년 희년을 맞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후원자들과 함께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숲길과 차가운 설원을 함께 걸으며,
후원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라는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순례길에는 트레킹과 함께 헤타우다 디비아 조티
학교의 새 교실 축복식도 함께했습니다.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완성된 교실 문을 처음 여는 순간,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마주한 그 감동은
안나푸르나의 어떤 절경보다 깊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앞으로도 후원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이들의 꿈이 함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제4차 수학여행

꿈을 향한 순례길, 네번째 여정



2025년 2월 24일, 올마이키즈는 캄보디아 뿌삿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네 번째 '꿈을 향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2024년 세 차례의 여정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면, 올해의 순례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씨엠립의 앙코르와트를 거닐며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온몸으로 느꼈던 감동에 더해, 이번에는 새로운 특별한 순간이 아이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집짓기 축복식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새 보금자리를 얻는 기쁨의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꿈이 자라나는 뿌리임을 아이들은 그날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 공부방 방문이었습니다. 후원자의 사랑이 담긴 공간에서 아이들은 후원자가 직접 만든 탕수육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다뤄보는 재료와 낯선 냄새,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터져 나온 웃음소리는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상마을 주민들과의 나눔이었습니다. 중3동성당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정성껏 준비한 수건과, 현수막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가방을 수상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버려질 수 있었던 현수막이 누군가의 일상을 담는 가방이 되었듯, 이 작은 선물 하나하나에는 멀리서 보내온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아 든 주민들의 미소는, 국경을 넘은 나눔이 얼마나 큰 온기를 전할 수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마을 밖을 한 번도 나서보지 못한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언젠가 아이들 각자의 꿈이 되어,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딛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꿈을 향한 순례길 위에서,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는 밸런스 게임

1

받아보고 싶은 아이의 소식?

A	VS	B
잘 정리한 이해할 수 있는 문서 받아보기		삐뚤빼뚤한 이해하기 어려운 손 글씨 받아보기

2

아이의 집에 가득 채워주고 싶은 것은?

A	VS	B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맛있는 빵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책

3

아이에게 꼭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은?

A	VS	B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용기

4

아이가 자라서 묻는다면, 더 듣고 싶은 말은?

A	VS	B
그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정답을 고르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이 향하는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눔은 큰 결심보다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었고,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하기 전에
삶의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아이들의 오늘을 지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이어지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께한다는 건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따스함 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

내가 꿈꾸는 아이와의 만남은?

A	VS	B
한국의 핫플레이스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기		아이의 나라에 가서 아이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보기

6

후원이 나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A	VS	B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7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나의 마음은?

A	VS	B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로 기억되기		완벽하게 자립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만큼 잘 살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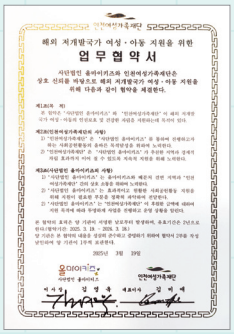
후원 선정에 있어서 희망하는 방법은?

A	VS	B
내가 선택하는 아이		아이가 선택하는 나



인천여성가족재단




해외 저개발국가 여성·아동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2025년 3월 19일 업무협약식

올마이키즈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따뜻한 동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이 연대는 베트남 닥도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재봉틀 후원을 시작으로, 면 생리대 키트, 필기도구 키트,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한 면 마스크, 모잠비크 아이들을 위한 현수막 리싸이클링 책가방 400개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그 사랑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9일, 올마이키즈 김영욱 이사장과 인천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이사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아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유효기간 2년의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저개발국 여성 · 아동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자립을 위한 연대를 공식적으로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후원금 200만 원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후원 물품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나눔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단 임직원들은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수익금을 꾸준히 기부해왔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작해 아이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버려질 뻔한 현수막이 아이들의 책가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한 땀 한 땀의 손길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재단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이 소중한 연대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덕분에, 오늘도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후원내역

- 2025년 3월 19일 업무협약 연장 체결 및 후원금 200만원과 후원 물품
- 2025년 12월 23일 후원금 200만원과 후원 물품
- 후원 물품 정기 전달 지속
- 현수막 리싸이클링 가방 등 자체 제작 후원 물품 캄보디아 주민 전달



2025년 12월 23일 후원금 전달식



2025년 12월 23일 후원 물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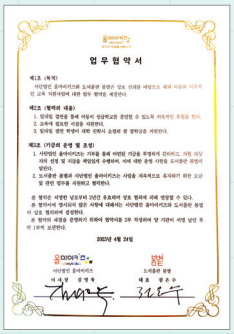




2025 으쓱 ESG해 상생 플리마켓

도서출판 봄볕




업 무 협 약 서

2025년 4월 24일 업무협약식

올마이키즈에게는 오래된 친구 같은 특별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작은 출판사, 도서출판 봄볕입니다.

봄볕의 권은수 대표는 "봄볕이 봄볕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봄에 꽁꽁 언 땅을 깨워 새싹을 불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볕'입니다. '봄볕'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눈부신 빛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온기로 어린이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행복한 마음을 깨우는 따뜻한 약볕처럼, 오래도록 아이들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따뜻한 철학이 봄볕과 올마이키즈를 오랜 친구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두 기관은 그 우정을 공식적인 약속으로 새롭게 새겼습니다. 올마이키즈 김영욱 이사장과 도서출판 봄볕 권은수 대표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며, 해외 아동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봄볕은 일대일 결연으로 아이들이 상급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며, 나아가 일대일 결연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소정의 꿈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서출판 봄볕은 출판되는 모든 책의 판매 수익 일부를 꾸준히 올마이키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후원해 왔습니다. 한결같은 나눔,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마음. 봄볕의 햇살은 오늘도 세상 어딘가 아이들의 배움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 협약 주요 내용(2025년 4월 24일)

- 일대일 결연을 통한 상급학교 졸업까지 지속 후원
-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 일대일 결연 학생 대학 진학 시 꿈 장학금 지원
- 도서 판매 수익 일부의 지속적 후원 연계

봄볕 선정 도서



미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협회(JLG) 추천도서

이것은 한 마리 아기 고양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랜달 드 세브 지음, 카슨 엘리스 그림, 김지은 옮김

멈추고, 들어주고, 함께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탐라순력도 1702년, 조선을 돌아보다

윤민용 지음, 샤샤미우 그림

300년 전 제주의 사람 · 자연 · 행정을 한 권에 담은 역사 그림책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나 너희 옆집 살아

성동혁 지음, 다안 그림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던시인의 삶을 담은 그림책



올해의청소년교양 추천도서

오늘부터 시작해! : 세상을 바꾼 25명의 청소년들

벤야민 코뇌들러 · 크리스티네 코뇌들러 지음, 펠릭시타스 호르스트쉐퍼 그림, 이명아 옮김

변화를 일궈 낸 청소년들의 간절한 외침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NGO로 배우는 더불어 살기

박동석 지음, 김진미 그림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돕는 엔지오!



한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

명정구 · 안미란 지음, 이승원 그림

재미가 찰랑이고 지식이 너울거리는 독도 바닷속 산책 한 바퀴



2025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제작지원 선정작

서랍 정리하는 날

서선정 쓰고 그림

추억과 세대를 잇는 오래된 옷 한 벌, 다정한 바늘 한 땀



그림책 크리틱 올해의그림책 선정도서

난 널 먹을 거야

데이비드 더프 지음, 마리안나 코포 그림, 김지은 옮김

생명의 순환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생태 그림책

함께 걷는 사람들

사랑이 머문 자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 물품을 후원해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필요한 곳에 닿아 아이들의 일상에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사랑이 전해진 기록이 아니라, 사랑이 머문 자리입니다.

용현노인
문화센터

정성 · 손길 · 마음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손 가방과 손 편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놀이 · 웃음 · 시간

아이들의 하루에 놀이와 웃음이 머물 수 있는 장난감





인천여성
가족재단

돌봄 · 보호 · 일상

아이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아기 옷





도서출판
봄볕

책 · 배움 · 지속

매달 출판 수익금의 일부를
교육 후원금과 영어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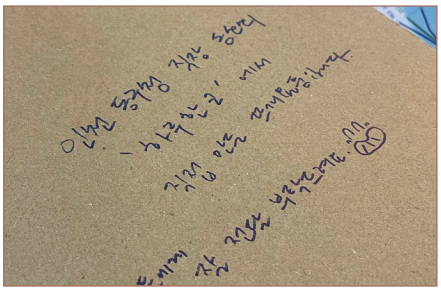


인천 동구
자원봉사
센터

손길 · 온기 · 사랑

'하루한코' 동호회 직접 뜬 모자와 목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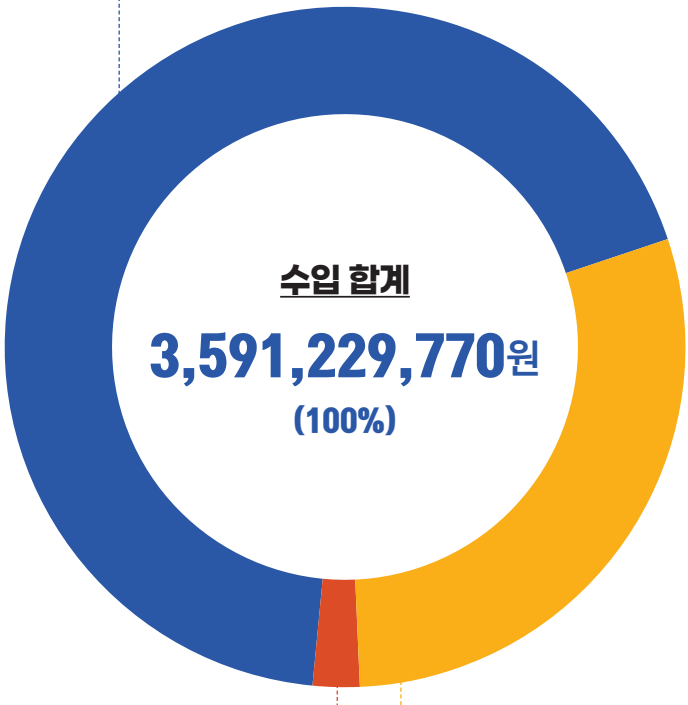
2025년 올마이키즈 재정 보고

제11(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1,058,209,452원(29.47%)

결연후원금	605,670,829원
교육후원금	240,570,000원
특별후원금	203,513,972원
운영후원금	8,300,000원
물품후원금	154,651원



후원금 외 수입

79,840,473원(2.22%)

이자수입	63,902,075원
외환차액	484,527원
고유목적사업준비환입	15,453,871원

2025년 사업준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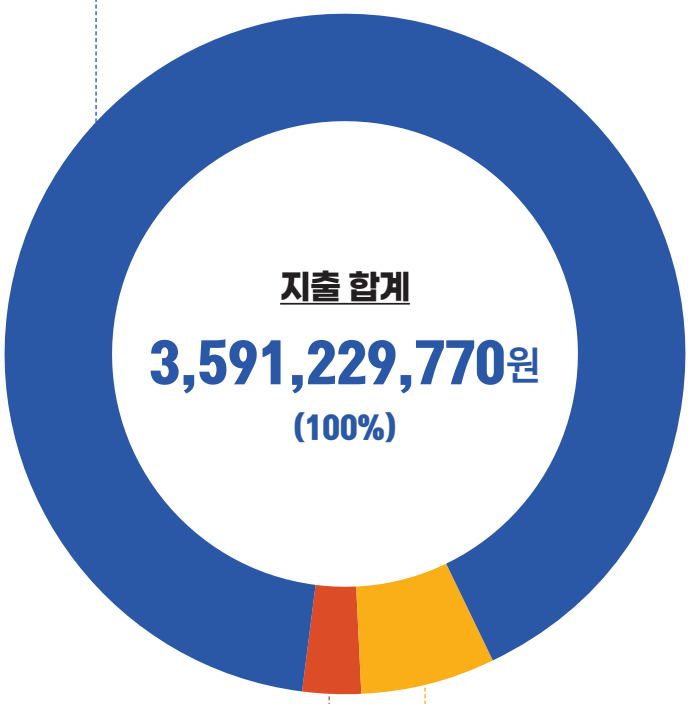
2,453,179,845원(68.31%)

사업 준비를 위한 이월금	2,453,179,845원

2025년 올마이키즈의 **재무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보고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마을을 나누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비
3,267,727,768원(90.99%)

아동결연사업	630,298,485원
교육지원사업	493,601,148원
꿈 장학금	20,300,010원
물품후원	4,878,900원
2026년 사업준비금	2,054,747,15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63,902,075원



일반관리비용 등
228,501,028원(6.36%)

사업비지원
95,000,974원(2.65%)

2012~2025년
올마이키즈 주요 연혁

125명에서 **1,828명**이 되기까지
마음들이 모여
아이들의 내일을 바꿔왔습니다.

2012~2015
시작
창립 & 첫걸음

2012 올마이키즈 창립
125명 결연 시작
법인 설립

2016~2020
확장
세계로 확장

20개국 이상 확대
학교 · 도서관 · 급식 지원
코로나 긴급 지원
캄보디아 봉사활동
KCOC 가입

2021~2025
성장
더 깊은 변화

꿈(CCUM) 장학회 설립
오종순 장학회 설립
교육 공모사업 확대
집짓기 사업

2025년

2월
-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제10회 정기총회
- 캄보디아 '꿈을 향한 순례길' (4차 수학여행)

3월
- 인천여성가족재단 MOU 연장 협약식

4월
- 도서출판 봄볕 MOU 체결
- 후원회원 행사(네팔 트레킹)

5월
- 네팔 헤타우다 고등학교 축복식

7월
- 배분처 방문(애덕 수녀원)

8월
- 제3회 올마이키즈 꿈(CCUM) 장학생 선발
- 창립 13주년 감사미사 및 행사

9월
- 인천여성가족재단 플리마켓 참여 및 홍보
- 물품 후원(인천 용현노인문화센터)
- 제1회 오종순장학회 장학생 선발

11월
- Benevity 최종 등록
- 국제 개발 협력 X 사회적경제 – 함께 만드는 생태계 조성 및 미래 혁신 포럼 참석

12월
- 물품 후원(인천동구자원센터)

결연아동 지원 19개국, 39개 배분처 1,828명

시설 지원
- 캄보디아 바탐방 교구 딴헨 웰컴센터 유치원 건축(신규)
- 챠드 아욱실리아 직업훈련 센터 건축(신규)
- 카메룬 냐비디 가톨릭 학교 확장 건축(신규)

프로그램 지원
- 모잠비크 연필 노트 지원(3년차)
- 페루 어린이 급식 지원 '맛있는 점심을 먹어요'(3년차)
- 몽골 '레인보우센터' 장애아동 사회참여 교육(3년차)
- 방글라데시 나자렛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및 대학생 교사 양성(3년차)
- 탄자니아 '음고응고 기술학교' 장학금(3년차)
- 탄자니아 '산자성당' 어린이 기본교육과 급식(3년차)
- 탄자니아 샤오힐 보육원 만다와 미라카 보육원 아동 지원(3년차)
- 네팔 '포카라 조티 켄트라' 탁아소의 교사 지원(2년차)
- 베트남 '와서 공부하고 꿈을 이루자!' '탄화성당' 소수민족 아이들(2년차)
- 방글라데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봉 교육(2년차)
- 모잠비크 하느님의 어머니 복지관 공부방 '공부밖에는 길이 없어요'(2년차)
- 파키스탄 100여명의 아이들에게 시급한 기초교육을 위한 지원(2년차)
- 몽골 방과 후 교실 운영(2년차)
- 인도 101명을 위한 학비와 60명의 기숙사비 지원(2년차)
- 캄보디아 청소년 생태 교육과 환경개선 활동(신규)
- 모잠비크 마루파 공부방 교사 급여 지원(신규)
- 콩고 세인트 어거스틴 도루마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재 지원(신규)
- 콩고 마카나 학교에 교실 비품 지원(신규)
- 탄자니아 마핑가 신학교 농업사업 지원(신규)
- 필리핀 우정의 집 프로젝트 교육과 급식(신규)

2025년
함께 해주신 회원

결연 후원

강계원, 강공준, 강기보, 강다혜, 강대선, 강동현, 강동훈, 강명수, 강미옥, 강병국, 강삼포, 강성오, 강세영, 강소라, 강소진, 강수진, 강숙영, 강아람, 강영민, 강영순, 강윤희, 강윤희, 강은주, 강은희, 강임산, 강정심, 강창동, 강채원, 강태경, 강태경, 이상종, 강한영, 강해숙, 강혜자, 강혜진, 강혜진, 경광석, 계명환, 고광희, 고금경, 고금자, 고기혁, 고남권, 고미애, 고병국, 고성진, 고승일, 고영식, 고영애, 고원호, 고유미, 고유진, 고은희, 고종익, 고찬희, 고춘희, 고혜미, 고혜숙, 공경순, 공도현, 공선희, 공성호, 공지예, 곽녕오, 곽민영, 곽진숙, 곽진희, 곽필선, 구자영, 구지현, 국초희, 궁혜연, 권도훈, 권보람, 권석우, 권소영, 권소은, 권수영, 권순근, 권솔아, 권순만, 권순미, 권실비아, 권영임, 권오윤, 권은옥, 권인기, 권정애, 권종덕, 권태연, 권하람, 권현미, 권혜진, 기건우, 기우람, 길한섭, 김겨레, 김 결, 김경덕, 김경례, 김경분, 김경숙, 김경열, 김경호,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관수, 김관식, 김광숙, 김광순, 김기석, 김기연, 김기용, 김나영, 김남아, 김남연, 김남희, 김능문, 김능현, 김다빈, 김다현, 김다현, 김대현, 김덕용, 김도윤, 김동건, 김동경, 김동선, 김동수, 김동영, 김두일, 김량희, 김말연, 김명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자, 김명자, 김명재, 김명진, 김명철, 김명희, 김묘연, 김무성, 김무연, 김문구, 김문호, 김문희, 김미경, 김미나, 김미례, 김미생, 김미수,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자, 김미진, 김미현, 김민선, 김민수,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하, 김병수, 김병욱, 김보용, 김복순, 김빛나, 김상건, 김상규, 김상화, 김새로, 김서연, 김서연, 김석일, 김 선, 김선미, 김선미, 김선민, 김선민, 김선아, 김선아, 김선영, 김선이, 김성곤, 김성구, 김성란, 김성묵, 김성숙, 김성원, 김성은, 김성자, 김성진, 김세영, 김소미, 김소현, 김수겸, 김수석,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수환, 김수희, 김순택, 김순화, 김순희, 김승재, 김승희, 김시경, 김시철, 김신일, 김아롱, 김아주, 김애경, 김에밀린, 김영기, 김영단, 김영대, 김영미, 김영미,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주, 김영주, 김영진, 김영찬, 김영학, 김영화, 김영환, 김영희,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옥연, 김옥연, 김옥화, 김완수, 김용석, 김용욱, 김용현, 김우람, 김운택, 김원용, 김유리, 김유림, 김유민, 김유순, 김윤숙, 김윤임,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임, 김은주, 김은주, 김은해, 김은현, 김은희, 김의진, 김의형, 김인기, 김인섭, 김인숙, 김인숙, 김인식, 김인자, 김인학, 김일회, 김자흡, 김재민, 김재범, 김재연, 김재원, 김재준, 김정국,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애, 김정여, 김정열,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주, 김정화, 김정희, 김종훈, 김주갑, 최지윤, 김주섭, 김주성, 김주영, 김준구, 김준희, 김중식, 김지연,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 김진숙, 김진옥, 김진효, 김진희, 김창겸, 김창수, 김창영, 김창영, 김창환, 김청자, 김춘길, 김춘성, 김충현, 김태모, 김태미, 김태영, 김태오, 김태완, 김태진, 김 풍, 김한나, 김한솔, 김한울, 김향성, 김현기, 김현봉, 김현석,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장유진, 김현신, 김현애,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혜경, 김혜선, 김혜수, 김혜숙, 정경호, 김혜연, 김혜연,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호열, 김홍미, 김홍섭, 김회만, 김효란, 김효빈, 김효성, 김효숙, 김희선, 김희정, 나경자, 나리영, 나수현, 나종진, 나중원, 나진경, 나현지, 남기복, 남선현, 남윤현, 남정우, 남혜란, 남효정, 노경희, 노금의, 노동한, 노보영, 노연주, 노옥경, 노이선, 노인순, 노지수, 노지영, 노지향, 두지은, 두예은, 두경민, 라혜영, 류미경, 류보정, 류애영, 류재웅, 류제성, 류지애, 류현애, 마예은, 마정선, 명재성, 명한라, 목선미, 목지원, 문가비, 문영미, 문용길, 문지수, 문창복, 문춘금, 문형석, 민구식, 민기원, 민들레, 민명자, 민명자, 민승주, 민연홍, 민영환, 민옥남, 민지희, 박강희, 박강희, 박경일, 박규동, 박근영, 박금구, 박금옥, 박기헌, 박기현, 박노롄조, 박동은, 조은숙, 박명숙, 박명숙, 박명철, 박미경, 박미숙, 박미정, 박미희, 박민섭, 박민정, 박민주, 박복순, 박상민, 박상빈, 박상윤, 박상진, 박상태, 박서영, 박선경, 박선례, 박선여, 박선용, 박 설, 박상준, 박성범, 박성숙, 박성숙, 박성우, 박성준, 박성철, 박세은, 박소현, 박소현, 박수정, 박수현, 박수환, 박순영, 박승수, 박시현, 박신우, 박연실, 박연옥, 박영미, 박영민, 박영수, 박영순, 박영신, 박영신, 한세은, 박영태, 박영환, 박왕대, 박요섭, 박용범, 박용일, 박원남, 박유림, 박유정, 박윤수, 박은경, 박은미, 박은수, 박은희, 박은희, 박익선, 박인순, 박재선, 박재성, 박재윤, 박정우, 박정의, 박정지, 박정희, 박제이, 박종만, 박종무, 박종복, 박종순, 박준용, 박준희, 박지봉, 박지숙, 박지숙, 박지용, 박지원, 박지은, 박진석, 박진옥, 박진희, 박창범, 박창영, 박철진, 박청룡, 박춘례, 박태근, 박하람, 박한미, 박한섭, 박해광, 박해연, 박해정, 박행기, 박현미, 전주술, 박현서, 박현숙, 박현정, 박형규, 박형순, 박혜경, 박혜영, 박혜윤, 박혜자, 박혜지, 박화선, 박 환, 박효정, 박효진, 박휘환, 박희영, 방경옥, 방관식, 방기숙, 방민종, 방수원, 방푸름, 배수인, 배순영, 배순욱, 배순천, 배승숙, 배승조, 배영민, 배은희, 배정수, 배준태, 배지은, 배현정, 배형식, 백가영, 백민철, 백운선, 백진랑, 백찬식, 변미선, 변정순, 복영구, 박슬기, 빈영순, 서경숙, 서광숙, 서기연, 서기화, 서다은, 서미숙, 서새미, 서승환, 서영주, 서원복, 서은우, 서정규, 서정욱, 서정원, 서준희, 서지연, 서진석, 서혜원, 서희서, 선우인희, 설관종, 설희영, 성미경, 성시내, 성영기, 성운정, 성유순, 소민호, 소효선, 손미숙, 손병관, 손상욱, 손서연, 손성열, 손유진, 손은순, 손의주, 손재순, 손채원, 손채은, 손청자, 손해련, 손호빈, 송경미, 송기숙, 송동숙, 송명환, 송부자, 송상열, 송수복, 송순예, 송순희, 송연옥, 송영관, 송영찬, 송영훈, 송유림, 송은정, 송인영, 송주은, 송지원, 송진영, 송채영, 송충용, 송충원, 송하이, 송학근, 승영선, 시노드림, 신갑순, 신나리, 신내호, 신동열, 신동일, 신배영, 신상길, 신서경, 신성애, 신성웅, 신수영, 신수현, 신숙자, 신숙향, 신순희, 신은종, 신이수, 신정희, 신주영, 신창우, 신현구, 신혜란, 신희경, 신희섭, 신희순, 신희창, 심명숙, 심미주, 심상순, 심상형, 심선애, 심순옥, 심신아, 심영란, 심재찬, 심진숙, 안가람, 안경재, 안국필, 안도건, 안동현, 안명숙, 안미숙, 안미영, 안상욱, 안성아, 양한수, 안성자, 안수기, 안순화, 안승천, 안영균, 안영신, 안영자, 안유라, 안윤진, 안재우, 안정순, 안정희, 안종미, 안차순, 안호중, 양동석, 양민정, 양봉순, 양서윤, 양성찬, 양성호, 양승규, 양윤희, 양은경, 양인순, 양정호, 양지명, 양하종, 양형지, 양홍식, 양희진, 어봉우, 엄경옥, 엄명화, 여지선, 연다운, 연준영, 염인숙, 염혜령, 오동현, 오동훈, 오상용, 오상호, 홍승연, 오성해, 오세영, 오세원, 오세찬, 오승연, 오승희, 오언숙, 오영옥, 오용호, 오윤숙, 오음전, 오장용, 오정숙, 오정옥, 오주연, 오준환, 오지혜, 오현정, 오형섭, 오호성, 오효숙, 옥광숙, 옥주현, 옥준희, 왕보영, 용희숙, 우금자, 우재성, 우점경, 우정규, 우종심, 원용희, 원종훈, 위상인, 유경선, 유도윤, 유동연, 유미나, 유병연, 유병옥, 유상돈, 유선재, 유성렬, 유소윤, 유승호, 유시영, 유영경, 유왕희, 유은숙, 유인호, 유정수, 유정열, 유종섭, 유창길, 유창환, 유철상, 유현준, 유형봉, 유혜란, 윤가현, 윤계련, 윤기섭, 윤나영, 윤명숙, 윤석민, 윤선태, 윤성택, 윤숙연, 윤연주, 윤영연, 윤원용, 나자경, 윤유진, 윤은경, 윤은희, 윤정연, 윤정은, 윤정훈, 윤지원, 윤창현, 윤혜란, 윤효석, 전보라, 윤희석,

이가영, 이강민, 이 경, 이경림, 이경우, 이경이,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계화, 이관일, 이광복, 이광수, 이광형, 이국자, 이규봉, 이규원, 이규창, 이기성, 이기진, 이나영, 이남순, 이다빈, 이대철, 이대홍, 이도원, 이동욱, 이동원, 이동희, 이두석, 이두원, 이만규, 이명렬, 이명희, 이문재, 이미선, 이미연, 이미영, 이미영, 이미영, 이미옥, 이미옥, 이미자, 이미재, 이미현, 이미화, 이민아, 이민정, 이병곤, 이병구, 이병국, 이병림, 이병삼, 이병욱, 이병욱, 이보란, 이복순, 이복형, 이봉숙, 이상남, 이상도, 이상민, 이상선, 이상우, 이상윤, 이상은, 이상훈, 이서윤, 이서현, 이석민, 이석영, 이선경,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선하, 이선화, 이선희, 이성규, 이성미, 이성숙, 이성열, 이성희, 이성희, 이소연, 이소영, 이소윤, 이소정, 이소희, 이수경, 이수빈, 이수빈, 이수연, 이수일,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숙경, 이숙경, 이숙경, 이숙희, 이순금, 이순옥, 이순자, 이순혜, 이순호, 이승남, 이승헌,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신희, 이아녜스, 이아람, 이아진, 이아현, 이애심, 이애정, 이양숙, 이양숙, 이여람, 이연숙, 이영걸, 이영경,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자, 이영희, 이영희, 이예진, 이용길, 이용진, 이용희, 이원국, 이원아, 이원학, 이유미, 이유진, 이유현, 신선숙, 이윤경, 이윤재,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은서, 이은순, 이은영, 이은자, 이은재, 이은하, 이은혜, 이인건, 이인숙, 이임구, 이장용, 이재수, 이재우, 이재운, 이재임, 이재천, 이점실, 이정관, 이정민,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애, 이정연, 이정옥, 이정제, 이정채,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정훈, 이종국, 이종찬, 이종헌, 이주선, 이주연, 이주연, 이주원, 이주형, 이주혜, 이 준, 이 준, 이준우, 이준호, 이중혁, 이지선, 이지아, 이로아,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지호, 이진아, 이진영, 이진용, 이진희, 이창석, 이창영, 이청아, 이초희, 이춘미, 이판열, 이하영, 이하영, 이해숙, 이해원, 이찬근, 정문주, 이해윤, 이향자, 이 현, 이현아, 이현주, 이현진, 이현진, 이형우, 이형원, 이혜란, 이혜란, 이혜선, 이혜선, 이혜숙, 이혜정, 이혜주, 이호정, 이회영, 이효민, 이흔정, 이희경, 이희숙, 이희숙, 이희연, 이희정, 이희정, 이희정, 이희천, 임계선, 임계숙, 임계숙, 임광순, 임대건, 임도진, 임동화, 임미재, 임성수, 임소라, 임소진, 임소화, 임영국, 정송엽, 임영식, 임예순, 임월권, 임은정, 임일권, 임장현, 임재숙, 임정연, 임정원, 임정은, 임정한, 임지수, 임지혜, 임창석, 임철순, 임태린, 임택근, 임해리, 임혜정, 임희선, 장경애, 장경진, 장광수, 장대석, 정애연, 장동윤, 장미랑, 장민주, 장상기, 장성진, 장순내, 장순정, 장승아, 장연심, 장영구, 장 용, 장원경, 장유경, 장유민, 장유진, 장은희, 장은희, 장입분, 장정숙, 장정욱, 장정화, 장 준, 장진영, 장진우, 장철호, 장해승, 장호순, 장희나, 장희록, 전동환, 전리아, 전미자, 전복식, 전상중, 전성준, 전알찬, 전인혁, 전재영, 전지오, 전정희, 전희재, 정계순, 정계자, 정광봉, 정광숙, 정광숙, 정광훈, 정기호, 정남균, 정도식, 정동진, 정말순, 정명수, 정명자, 정 민, 정민교, 정민영, 정병수, 정보경, 정상훈, 정 선, 정 선, 정선경, 정성훈, 정성희, 정소영, 정수연, 정순경, 정순복, 정순홍, 정아진, 정영미, 정요안, 정원경, 정원규, 정유경, 정유철, 정윤자, 정은숙, 정은정, 정은진, 정일성, 정재봉, 정정숙, 정정자, 정지영, 정지혜, 정진아, 정진희, 정창화, 정춘화, 정학주, 정한라, 정한설, 정해득, 정현석, 정현숙, 정현정, 정현주, 정혜경, 정혜숙, 정호진, 정호철, 정희도, 조경란, 조경민, 조규정, 조길영, 유인희, 조남석, 조남점, 조남진, 조덕형, 조돈찬, 조명동, 조명연, 조문경, 조문순, 조문호, 조 석, 조성길, 조성진, 조소영, 조수현, 조순래, 조슬기, 조승진, 조아라, 조영란, 조영숙, 조영옥, 조영옥, 조용훈, 조원웅, 조원행, 조윤하, 조은경, 조은연, 조은찬, 조이현, 조인숙, 조재인, 조재현, 조정연, 조준희, 조진숙, 조항심, 조형윤, 조희진, 주민호, 주영훈, 주정순, 주혜순, 지민구, 지윤정, 지인실, 지정옥, 지희숙, 진사랑, 진선희, 차동수, 차왕용, 차진희, 차혜숙, 채승희, 채신덕, 채유병, 천나미, 천미혜, 천세영, 천승학, 천은주, 최경미, 최경원, 최경자, 최금숙, 최누리, 최대호, 최명인, 최명호, 최미경, 최민서, 최민아, 최민정, 최바오로, 최범진, 최복련, 최상수, 최서일, 최서창, 최선화, 최성권, 최성남, 최세경, 최수정, 최숙환, 최승범, 최시창, 최양규, 최연서, 최연순, 최연승, 최연진, 최영수, 최영은,

최영자, 최영희, 최예슬, 최용병, 최우진, 최윤선, 최윤정, 최은성, 최은정, 최은희, 최은희, 최정호, 최종철, 이은혜, 최재순, 최준원, 최지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지현, 최진국, 최진우, 최창기, 최춘복, 최치홍, 최혁승, 최현석, 최형호, 최혜이, 최혜일, 최화숙, 최효숙, 최희숙, 최희옥, 추정아, 표병화, 하미숙, 하연숙, 한가람, 한경동, 한동현, 한동희, 한민호, 한복례, 한상영, 한석봉, 한석희, 한세라, 한수경, 한수연, 한수연, 한수영, 한승구, 한안나, 한연석, 한연희, 한영란, 한우리, 한정님, 한정욱, 한정희, 한중용, 한지은, 한지혜, 한찬혁, 한혜정, 한희영, 함미성, 허귀란, 허미현, 허재석, 허재원, 허정원, 허정인, 허진명, 현동준, 현명수, 현승훈, 현은주, 호디자인, 홍권희, 전민자, 홍기석, 홍석영, 홍성숙, 홍연자, 홍옥경, 홍의진, 홍종수, 홍지은, 홍혜나, 홍혜영, 홍희자, 황규호, 황명수, 황명진, 황미경, 황선숙, 황수려, 황수아, 황순경, 황애란, 황애현, 황옥희, 황윤서, 황의성, 황익주, 황인섭, 황정애, 황정진, 황중숙, 황초현, 황현미, 황혜경, 황희석

㈜계영건설, ㈜대광이앤씨, ㈜삼호정기, ㈜서암테크, ㈜선광, ㈜신안스텐, ㈜신흥케미칼, ㈜진일전기, ㈜케이씨폴, 강소인(바오로), 고계훈(마태오), 곤산실업㈜, 김근태 프란치스코, 낙원기업㈜, 덕소성당 14구역, 도서출판 봄볕, 동재윤재, 등불회윤훈기, 럭키파이브(장지희), 면형의 집, 모던필라테스 분당지부, 박경신베르트란드, 박영 장경민, 박혜인(노엘라), 샘동네지역아동센터, 성김대건성당순교자들의 모후Pr, 소사본3동성모승천, 소사본동한울빛성가대, 수요반모임, 숭의동바오로회, 슈퍼맨과 배트맨, 엠에스엔티 주식회사, 연세우주아이정치과, 염계월 故 정경복, 정문선(글라라), 조성준(라파엘), 주식회사 제이씨코리아, 주식회사카본메이크, 주안5동사회복지분과, 주안5동성모회, 주안5동순교자모후, 주안5동일치의모후, 주안8동 청년복사단, 중3동그리스도의어머니pr., 중3동성실하신동정녀Pr., 중3동인자하신어머니Pr., 중3동일치의모후Pr., 중3동천사들의모후Pr., 중3동천상의어머니Pr., 중3동체나콜로화요팀, 청라빈첸시오회, 최미숙(헬레나), 최지은(최윤정), 통진글로리아성가대, 하하하훼밀리, 한승희 베드로, 효성동성당청년전례부

교육 후원

감은주, 강경아, 강경호, 강경화, 강경화, 강경희, 강금연, 강나은, 강대수, 강대옥, 강동술, 강무웅, 강미정, 강미혜, 강민정, 강병갑, 강보경, 강석환, 강성문, 강숙연, 강순주, 강애숙, 강연순, 강영구, 강영란, 강영선, 강윤희, 강정애, 강정희, 강종민, 강준혁, 강지석, 강청원, 강현옥, 경은재, 계명환, 고경남, 고경탁, 고아라, 고두환, 고성진, 고아라, 고장훈, 고정숙, 고지성, 고진아, 고 현, 고혜진, 고호준, 고흥식, 공숙경, 공인택, 곽명숙, 곽명호, 곽영철, 곽정은, 곽정자, 곽형선, 구명자, 구숙정, 구윤희, 구은회, 구자경, 구철수, 국수은, 국태웅, 권미숙, 권민정, 권성한, 권세현, 권순남, 권순만, 권순옥, 권순후, 권용환, 권유안, 권인숙, 권태영, 권현정, 권혜영, 김가은, 김강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수, 김경수, 김경자, 김경혜, 김경희, 김경희, 김광분, 김광자, 김광훈, 김광희, 김귀희, 김규동, 김근복, 김근선, 김근혜, 김근희, 김기범, 김기옥, 김기원, 김기헌, 김기호, 김기환, 김기훈, 김길정, 김나경, 김낙원, 김남산, 김대종, 김도선, 김도연, 김도영, 김도영, 김도현, 김도훈, 김동섭, 김동섭, 김동훈, 김두희, 김만진, 김만희, 김명수, 김명준, 김명희, 김명희, 김문옥, 김미경, 김미래,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서, 김민선, 김민식, 김민자, 김민정, 김민주, 김 별, 김병령, 김병선, 김병술, 김병인, 김병현, 김보람, 김보민, 김보용 강혜자, 김복성, 김복순, 김복연, 김복일, 김 봄, 김부순, 김빛나, 김상길, 김상우, 김상훈, 김서연, 김서열, 김서희, 김석훈, 김석희, 김선경, 김선라,

김선자, 김선희, 김성례, 김성민, 김성수, 김성숙, 김성신, 김성용, 김성자, 김성자, 김성진, 김세영, 김세욱, 김세진,
김세현, 김소영, 김소원, 김수림, 김수자, 김수현, 김숙희, 김순미, 김순숙, 김순옥, 김 숭, 김승기, 김승옥, 김승주,
김시정, 김시형, 김신자, 김아름, 김아림, 김연관, 김연수, 김연하, 김영례, 김영민, 김영범, 김영숙,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애, 김영옥, 김영은, 김영자, 김영준, 김영협, 김영호, 김영환,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예강, 김예지,
김옥분, 김옥순, 김옥연, 김요한, 김용경, 김용광, 김용국, 김용현, 김용훈, 김우주, 김우진, 김원열, 김유경, 김유리,
김유민, 김유섭, 김유진, 김유현, 김윤회, 김은경,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임, 김은자,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응현, 김이도, 김인수, 김인숙, 김인숙, 김인자, 김인철, 김인희, 김일선, 김임순, 김재민,
김재순, 김재영, 김재하, 김점덕, 김정기, 김정면, 김정미, 김정복, 김정신, 김정심, 김정영,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자,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화, 김정화,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종규, 김종만, 김종명,
김종수, 김종숙, 김종운, 김종한, 김주용, 김준석, 김준식, 김준영, 김준우, 김준희, 김지성, 김지연, 김지완,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진남, 김진대, 김진만, 김진수, 김진옥, 김진우, 김진욱, 김진하, 김창곤,
김창수, 김창용, 김창환, 김춘자, 김태숙, 김태완, 김평순, 김하연, 김하영, 김하옥, 김한샘, 김한욱, 김해련, 김해린,
김현석, 김현옥,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형규, 김혜련,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혜정, 김혜진, 김호연, 김홍국,
김화연, 김화영, 김화중, 김효심, 김효아, 김효양, 김효임, 김희경, 김희경, 김희연, 김희자, 김희정, 나근식, 나도근,
나도영, 나성자, 나숙임, 나원희, 나현희, 나효순, 남궁길구, 남상민, 남상익, 남선우, 남옥자, 남정임, 남화순, 노경희,
노복임, 노영호, 노종면, 노지호, 노하정, 노혜정, 도란희, 도명택, 도성자, 도재옥, 라혜련, 류경옥, 류동찬, 류민자,
류성용, 류수연, 류재웅, 류 진, 맹성준, 맹영숙, 명노헌, 명수현, 목수일, 목해연, 문경아, 문금주, 문미경, 문상원,
문선아, 문소연, 문수희, 문숙경, 문여경, 문이경, 문정남, 문현경, 문현식, 문효진, 민경훈, 민계숙, 민병례, 민병춘,
민영문, 민지혜, 민지희, 민화옥, 박경례, 박경숙, 박경식, 박경연, 박경옥, 박경자, 박경한, 박경화, 박경희, 박계순,
박귀희, 박규연, 박금옥, 박금휘, 박기복, 박길홍, 박노희, 박대진, 박동선, 박동수, 박레아, 박리나, 박무영, 박문주,
박미경, 박미옥, 박미형, 박병주, 박복임, 박복자, 박봉심, 박분옥, 박상순, 박상일, 박상희, 박상희, 박선미, 박선애,
박선옥, 박선용, 박선희, 박성동, 박성민, 박성식, 박성철, 박성해, 박소연, 박수민, 박순기, 박순남, 박순란, 박순애,
박순자, 박영선, 박영순, 박영순, 박영조, 박영찬, 박영출, 박영태, 박영화, 박옥례, 박요섭, 박용근, 박용한, 박은숙,
박은순, 박은영, 박은자, 박익배, 박인선, 박인자, 박임순, 박재희, 박점순, 박정순, 박정심, 박정원, 박정음, 박정화,
박제영, 박종서, 박종인, 박종현, 박준화, 박지령, 박진숙, 박찬순, 박찬희, 박천웅, 박춘옥, 박필숙, 박현미, 박현숙,
박현숙, 박현열, 박현영, 박현주, 박현주, 박현희, 박혜경, 박혜림, 박혜현, 박호상, 박화수, 박화자, 박효경, 박휘환,
박흥준, 박희영, 박희재, 박희춘, 반옥현, 방문자, 방선영, 방송미, 방연주, 방현숙, 방효옥, 배경석, 배공식, 배권환,
배동순, 배보름, 배복희, 배선열, 배성만, 배예경, 배정선, 배지은, 백남구, 백미영, 백영란, 백종녀, 백준우, 백혜연,
변수영, 변연주, 변은숙, 변종필, 변현재, 변화숙, 북극곰, 서경석, 서경옥, 서경원, 서광숙, 서길준, 서도영, 서동현,
서명희, 서민아, 서영성, 서은진, 서정임, 서정화, 서태석, 서현순, 서현주, 서형기, 서혜경, 선명규, 설은옥, 설지연,
성경희, 성락길, 성민정, 성병숙, 성영란, 성용훈, 성종석, 성진수, 성현옥, 소진순, 소채환, 손명희, 손미현, 손순임,
손영범, 손유철, 손종철, 손한기, 손해련, 손현진, 손홍일, 송경선, 송경숙, 송고은, 송기범, 송기인, 송명수, 송미경,
송미희, 송민정, 송민주, 송서현, 송아름, 송영권, 송영숙, 송영아, 송영자, 송영주, 송영주, 송은주, 송익섭, 송인강,
송정란, 송정임, 송정자, 송종민, 송진완, 송치영, 송현숙, 시미경, 신경숙, 신대운, 신동순, 신명옥, 신명희, 신수영,
신영선, 신유경, 신유진, 신윤희, 신은숙, 신은종, 신은주, 신은지, 신지애, 신현숙, 신현식, 신희자, 신희창, 심광일,

심금희, 심명주, 심미주, 심상준, 심영리, 심은희, 심재옥, 심재학, 심재훈, 심초롱, 심태은, 심현술, 심호정, 안경주, 안명섭, 안명자, 안미자, 안민혁, 안병숙, 안성민, 안성완, 안세찬, 안소영, 안수경, 안수남, 안숙자, 안영아, 안영애, 안은자, 안응용, 안인숙, 안정균, 양경선, 양근원, 양동복, 양미숙, 양선우, 양소연, 양수현, 양승갑, 양승월, 양은영, 양인실, 양점순, 양정임, 양종귀, 양진욱, 양진조, 양필순, 양현미, 양희원, 엄우용, 여영숙, 여은파, 염성자, 오경민, 오경석, 오기옥, 오남용, 오무경, 오미란, 오세희, 오순녀, 오승근, 오승희, 오영옥, 오영준, 오윤주, 오은영, 오인숙, 오인순, 오정수, 오정열, 오정옥, 오정현, 오창용, 오한숙희, 오한영, 오혜원, 옥주현, 왕진택, 우상훈, 우영하, 우재영, 우정선, 우정애, 우종식, 우태순, 우현정, 원금순, 원상훈, 원수연, 원장환, 원풍식, 유경자, 유경춘, 유동현, 유미경, 유미나, 유미정, 유미희, 유민영, 유병열, 유병태, 유병학, 유서영, 유선임, 유선혜, 유성민, 유수정, 유숙자, 유순정, 유영순, 유용숙, 유인숙, 유정숙, 유정임, 유종진, 유종하, 유주희, 유지연, 유진형, 유한현, 유현경, 유홍순, 유효숙, 유희자, 윤경희, 윤계련, 윤근아, 윤명진, 윤문자, 윤민영, 윤병우, 윤보옥, 윤부경, 윤부국, 윤선양, 윤승분, 윤시림, 윤시연, 윤시연, 윤여임, 윤연희, 윤영자, 윤용일, 윤인아, 윤재우, 윤재환, 윤정순, 윤정순, 윤정애, 윤정희, 윤정희, 윤준보, 윤진화, 윤혜숙, 윤혜영, 윤희진, 이가영, 이강남, 이건구, 이건우, 이경록, 이경분, 이경선, 이경숙, 이경숙, 이경신, 이경애, 이경일, 이경자, 이경재, 이경재, 이경화, 이경화, 이계진, 이광규, 이근범, 이기숙, 이다빈, 이대연, 이도연, 이동수, 이동영, 이동진, 이동하, 이동현, 이동호, 이멜다, 이명숙, 이명제, 이문주, 이미경, 이미경, 이미석, 이미숙, 이미연, 이미영, 이미옥, 이미정, 이미화, 이미희, 이민규, 이민나, 이민준, 이민희, 이병년, 이병준, 이병훈, 이보영, 이복례, 이봉이, 이부희, 이상미, 이상민, 이상순, 이상인, 이상철,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서유, 이서헌, 이선경, 이선미, 이선용, 이선중, 박미호, 이선희, 이선희, 이성배, 이성복, 이성숙, 이성호, 이송의, 이송자, 이수노, 이수미, 이수영, 이수인,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철, 이수학, 이숙재, 이순규, 이순근, 이순복, 이순분, 이순선, 이순선, 이순옥, 이순원, 이순자, 이순자, 이순진, 이순희, 이승미, 이승선, 이승연, 이승주, 이승현, 이시윤, 이신수, 이아녜스, 이아영, 이안나, 이애자, 이양순, 이양임, 이양한, 이연성, 이연희, 이영근, 이영란, 이영림, 이영민,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임, 이영자, 이영조, 이영찬, 이영춘, 이영현, 이영혜, 이영희, 이예리, 이옥순, 이옥자, 이용관, 이용신, 이우종, 이원목, 이원자, 이원자, 이유경, 이유라, 이유리, 이유정, 이윤석, 이윤수, 이윤정, 이윤정, 이윤화, 이은구, 이은미, 이은성, 이은숙, 이은숙, 이은승, 이은심, 이은옥,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응혁, 이의진, 이인숙, 이장옥, 이재득, 이재숙, 이점옥,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자, 이정제, 이정해, 이정화, 이정희, 이종숙, 이종숙, 이종한, 이종헌, 이종현, 이주연, 이주영, 이주현, 이준분, 이준화, 이지선,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은, 이진숙, 이진우, 이진희, 이진희, 이찬우, 이창제, 이철기, 이 청, 이청화, 이춘자, 이충열, 이태효, 이한별, 이한성, 이한용, 이향숙, 이향숙, 이향숙, 이혁동, 이 현, 이현경, 이현숙, 이현아, 이현정, 이현정, 이형대, 이형록, 이혜선, 이혜숙, 이혜영, 이혜옥, 이혜인, 이혜자, 이호림, 이호철, 이화택, 이효성, 이효정, 이희경, 이희문, 이희선, 이희숙, 인재일, 인춘희, 임경아, 임미자, 임미자, 임미화, 임복임, 임성묵, 임수현, 임순덕, 임순택, 임애자, 임영자, 임용수, 임우람, 임은실, 임재굉, 임정원, 임정임, 임정한, 임지현, 임현옥, 임현주, 임혜숙, 장경아, 장경자, 장경희, 장기철, 장길순, 장동수, 장동일, 장명주, 장명추, 장미란, 장미향, 장병록, 장복남, 장석자, 장선경, 장선옥, 장순덕, 장순덕, 장영실, 장용미, 장인용, 장인한, 장정애, 장정애, 장종완, 장지희, 장충렬, 장태자, 장하은, 장현태, 전경범, 전미경, 전미경, 전미란, 전미진, 전상욱, 전숙희, 전양현, 전은숙, 전재민, 전재학, 전준수, 전진삼, 전치권, 정가영, 정경암, 정경애, 정 국, 정귀영, 정금교, 정금옥, 정금윤, 정다영, 정덕임, 정도식, 정동자, 정막동, 정명자, 정무경, 정문용, 정미진, 정복희, 정봉덕, 정상자, 정선자, 정선희, 정성권, 정성모,

정성자, 정성조, 정성준, 정성희, 정수영, 정순화, 정신자, 정애경, 정어진, 정연서, 정연실, 정연진, 정영길, 정영순, 정영순, 정옥자, 정요안, 정원택, 정유철, 정은희, 정인자, 정재옥, 정주아, 정지연, 정지연, 정진영, 정태양, 정태진, 정필선, 정해경, 정해득, 정현남, 정현식, 정혜리, 정혜영, 정혜임, 정호철, 정화련, 정효자, 정훈숙, 정희숙, 제도흥, 제환숙, 조경미, 조경원, 조경자, 조기갑, 조나예, 조동규, 조명옥, 조목희, 조문기, 조미숙, 조미애, 조병호, 조복례, 조봉자, 조분남, 조상규, 조성환, 조숙자, 조순남, 조순래, 조순선, 조연주, 조영미, 조영진, 조영희, 조옥열, 조용득, 조용석, 조윤선, 조윤수, 조은향, 조이수, 조인숙, 조인식, 조자현, 조정화, 조준희, 조진선, 조채복, 조필남, 조한벽, 조현자, 조화영, 조희봉, 주선희, 주영근, 주정수, 주진해, 지공순, 지다혜, 지명수, 지미성, 지성자, 지수현, 지연수, 지연자, 지운옥, 진은옥, 차숙희, 차연희, 차주한, 차지연, 차찬규, 채명희, 채미나, 채미옥, 채서진, 김수현, 채윤제, 류하늘, 채정윤, 천명희, 천선금, 천영미, 천정순, 천현숙, 최경식, 최경옥, 최광순, 최광은, 최귀자, 최규진, 최근성, 최기성, 유지영, 최남석, 최누리, 최덕순, 최동순, 최동혁, 최명숙, 최미교, 최미순, 최범진, 최병윤, 최복녀, 최삼순, 최상은, 최선자, 최성애, 최성호, 최수봉, 최순영, 최순옥, 최승미, 최승범, 최신영, 최연규, 최연자, 최영길, 최영란, 최영숙, 최영희, 최옥의, 최용석, 최원준, 최유경, 최은영, 최인영, 최정윤, 최정자, 최정호, 최 준, 최지만, 최진국, 최진영, 최진이, 최진철, 최창호, 최태균, 최혜경, 최혜화, 최효정, 최희선, 최희숙, 최희영, 최희옥, 추민지, 추순옥, 추연웅, 태정민, 표기자, 피순신, 하나회, 하미진, 하미화, 하복례, 하성목, 하순자, 하영미, 하재영, 한경희, 한금선, 한미환, 한봉순, 한봉애, 한상국, 한순이, 한순희, 한승욱, 한연주, 한영부, 한영분, 한영순, 한정주, 한준엽, 한진경, 한해균, 함미연, 허미숙, 허미영, 허성희, 허숙자, 허은희, 허정인, 현 주, 호영자, 홍덕수, 홍두표, 홍명덕, 홍복수, 홍석창, 홍선아, 홍선희, 홍성권, 홍성복, 홍성실, 홍성자, 홍성장, 홍영자, 홍윤정, 홍정숙, 홍정희, 홍지은, 홍화엽, 홍희정, 황 경, 황록하, 황선일, 황세원, 황순근, 황순심, 황애현, 황영희, 황용남, 황은희, 황인옥, 황현수, 황현철
㈜더더철강, ㈜렉스바, ㈜삼호정기, ㈜선우테크, ㈜케이씨 폴, LEE KEUM HEE, 건 디자인, 권양자(미카엘라), 도서출판 봄볕, 등불회이우복, 모던필라테스 분당지부, 박근주(안드레아), 소사본3동솟대단스카우트, 숭의동빈첸시오회, 엠에스엔티 주식회사, 이데이지윤진, 정건(에라스토), 정연섭(베드로), 중3동재속프란치스코회인천콜베형제회, 주식회사 피데스, 한대희 루카, 효성동그라시아성가대

특별 후원

강은주, 고아름, 김경민, 김기철, 김미애, 김미영, 김범수, 김보빈, 김승춘, 김용임, 김정신, 김종숙, 나주희, 문성희, 박금옥, 박서영, 박승면, 박요섭, 배선영, 배지윤, 보담다, 서은진, 손청자, 심선애, 안명자, 오종순, 오창근, 우선영, 유철종, 이근일, 이명옥, 이복순, 이영춘, 이원규, 이윤선, 이은희, 장순정, 장영선, 정인화, 조성희, 채유병, 최연자, 최익준, 최현우, 호인수, 황현철
㈜어울림, ㈜진명프리텍, 논현동성당청년회, 도서출판 봄볕, 등불회김광일, 등불회윤훈기, 등불회이우복, 부평1동청년성가대하기오스, 사단법인 행복공장, 산티아고순례길, 성김대건성당(미국 미네소타주), 신철(베드로), 유이(HARUE KIYOKO), 이창언(세례자요한), 인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정안나(율리엣다), 주식회사 맛잇쏘, 주식회사 한국이러닝교육원, 중3동천상의어머니Pr., 최여옥(수산나),

집짓기 후원

김기철, 김진숙, 성부용(데레사), 송충용, 오스틴(이지형), 윤지원, 장순덕, 캄보후원회

수학여행 후원

박행기, 이교찬, 이영자

꿈 장학금 후원

박영화

운영비 후원

김영욱, 김효식(바다의별), 박금희(바다의별유치원), 유철종, 한경택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김영욱 이사장(사제, 천주교 인천교구)
강은형 이사(선교사)
권은수 이사(도서출판 봄볕 대표)
김현애 이사(전 소명여고 교사)
김효식 이사(컴파스컨설팅협동조합, 이사장)
김효식 이사(바다의 별 유치원, 이사장)
노지향 이사(연극인, 사단법인 행복공장 상임이사)
박금희 이사(바다의별 유치원 원장)
박영대 이사(활동가, 복지공동체 푸른마을 이사)
심영란 이사(전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장)
유철종 이사(기업인,(주)제이엔시테크 대표이사)
이창헌 이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현)
정광봉 이사((주)삼화기연 대표)
정요안 이사(한양대학교 교수, 지오씨(주)고문)
정호철 이사(전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상임대표)
지연실 이사(여럿이 함께 대표)
한경택 이사(기업인, 엠코타운 센트로엘 대표)
호인수 이사(원로 사제, 천주교 인천교구)

감사

김영환 감사

배분위원회

송성호 위원장
권은수 위원, **김현숙** 위원, **최서일** 위원

대외협력위원회

박민섭 위원장
고병국 위원, **송석훈** 위원, **심재찬** 위원, **윤창현** 위원

사무국

유승호 사무국장, **박성빈** 국제협력팀장, **이혜인** 국제협력부팀장
최인자 후원관리팀장, **장순정** 결연아동팀장



더 가까이, 올마이키즈

Q 결연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A 아이를 향한 후원자님의 특별한 애정은 저희에게도 큰 감동입니다.
그러나 올마이키즈는 개인적인 선물보다는, 모든 아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의 선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교실 안에서 누구는 선물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때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자칫 다른 아이들에게는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올마이키즈는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주세요. 후원자님의 사랑이 한 아이를 넘어 그 교실 전체의 행복이 되는 기적을 올마이키즈가 정성껏 전달하겠습니다.

Q 언제까지 아동을 후원할 수 있나요?

A 올마이키즈의 결연 아동 후원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일부 배분처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까지만 관리하는 곳도 있어, 현지 환경과 기관 상황에 따라 후원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하여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꿈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 장학금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 장학금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올마이키즈 홈페이지 리뉴얼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기다림 덕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와 그 변화의 순간들을 더 깊이 담아내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우리의 여정을 더 진솔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마이키즈 올마이키즈는 아동결연 · 교육지원 · 장학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당신의 나눔은
어떤 문장으로 기억되나요?

어떤 아이에게는
처음 학교에 가던 날로 기억 됩니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가 됩니다.

이 책을 덮을 때쯤,
당신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allmykids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80, 505호
전 화 032-214-7700
팩 스 032-214-7701
대표 이메일 allmykids@allmykids.org
홈 페 이 지 www.allmykids.org
카카오톡채널 올마이키즈

표지사진
캄보디아 뿌삿 그리스도교육수녀회
쓰라쓰롱 마을 공부방 아이들

